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중국어 ‘给, 跟, 在’의 범주와 의미에 관한 연구

-영어 및 한국어의 현상과 관련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서 율 아

중국어 ‘给, 跟, 在’ 의 범주와 의미에 관한 연구

-영어 및 한국어의 현상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Category and Meaning of Chinese
'给, 跟, 在' with Reference to English and Korean

2016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서 율 아

중국어 ‘給, 跟, 在’ 의 범주와 의미에 관한 연구

-영어 및 한국어의 현상과 관련하여-

지도교수 강 희 조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서 율 아

서월아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 | | | |
|-----|-------|----|------------------|
| 위원장 | 전남대학교 | 교수 | <u>송 경 안</u>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이 남 근</u>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최 영 주</u>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강 희 조</u> (인) |
| 위 원 | 조선대학교 | 교수 | <u>이 영 현</u> (인) |

2016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 | |
|---------------------------|----|
| I. 서론..... | 3 |
| II. 중국어 품사분류와 앞선 연구 | 6 |
| 1. 품사 분류..... | 12 |
| 2. 給, 跟, 在에 대한 앞선 연구..... | 15 |
| 1) 給의 특성..... | 15 |
| 2) 跟의 특성..... | 22 |
| 3) 在의 특성..... | 26 |
| III.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 | 30 |
| 1. 범주문법..... | 31 |
| 2. 사건구조 의미론..... | 34 |
| IV. 給의 통사범주와 의미..... | 41 |
| 1. 給의 통사범주..... | 41 |
| 2. 조동사로서 給..... | 46 |
| 3. 給의 이동..... | 53 |
| 4. 給의 의미 기술..... | 62 |
| V. 跟의 범주설정과 의미..... | 70 |
| 1. 跟의 통사적 범주..... | 70 |
| 1) 대동사로서 跟..... | 73 |

| | |
|---------------------|-----|
| 2) 跟은 접속사적 특성..... | 82 |
| 3) 跟은 연동사적 특성..... | 86 |
| 2. 跟의 의미표시..... | 89 |
| | |
| VI. 在의 범주와 의미..... | 94 |
| 1. 在의 동사적 특성..... | 95 |
| 2. 전치사구로서 在家..... | 97 |
| 3. 상조동사로서 在..... | 102 |
| 4. 在의 논항구조와 의미..... | 106 |
| | |
| VII. 결론..... | 113 |
| | |
| 【참고문헌】 | 116 |

ABSTRACT

A Study on the Category and Meaning of Chinese '给, 跟, 在' with the Reference to English and Korean

XU YUEE

Advisor: Prof. Kang Hijo, Ph.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characteristics of Chinese, 'gei, gen, and zai' in comparison with English and Korean verbs, and to represent their meanings by logical form. The traditional approach to the description of those words has focused on the multiple categorization based on the inductive method. Resultatively those studies gave neither the semantic description of the words nor the structural relations with other arguments. However, categorial grammar and event structure semantics, which I imposed here as a description tool, can provide the transparent formalization of syntactic relations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Traditionally Chinese scholars classified a word into the multiple categories. Chinese word 'gei' has been classified as a verb, prepositional, or conjunction depending on the syntactic or semantic interpretations. However, the word 'gei' represents a relation between their arguments regardless of their categories. Also 'gei' functions as an auxiliary verb as those in Korean. Korean 'cuta(give)' in 'pilli-e(lend) cuta(give)' and Chinese 'gei(give)' in 'jie(lend) gei(give)' are considered to have the same syntactic

structure and semantic function, though the complex verbs 'pilli-e cuta' in Korean and 'jie gei' in Chinese are realized as a single verb *lend* in English. On the other hand, English verb *give* can be decomposed as V1 and V2 with respect to the arguments that the verb goes with. The Chinese 'gen' has been classified as a verb, a preposition, or a conjunction, but it is regarded as a pro-verb in this thesis. Since the preposition represents a 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argument and external argument just like a verb as the conjunction can be treated as a predicate of two sentences, I argue 'gen' is a pro-verb, whose function can cover those of traditional verbs, prepositions, and conjunctions. Also, with the help of the event structure semantics, I describe the meaning of 'gen' in a clearer way.

Lastly I argue that the Chinese 'zai' in [zai + VP] be treated as an aspectual auxiliary that shows a functional relation such as functor-argument in the model of categorial grammar, while 'zai' in two different structures, [zai + NP] or [zai + NP + VP], is regarded as a preposition. I also argue that 'zai' in [zai + NP + VP] be a sentential adverb or a predicate adverb depending on the meaning of NP.

I. 서론

전통적으로 중국어에서 동사, 개사(전치사) 등으로 분류되었던 給, 跟, 在에 관한 연구는 이들 범주¹⁾ 설정에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이들의 문법적 기능 특히 이들 표현이 갖는 함수적 기능에 관한 논의를 간과함으로써 이들 표현의 의미적 특성과 통사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범주설정의 전제는 통사적 관계를 기술하거나 의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표현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이들 표현이 문장 내에서 출현하는 위치나 전통적인 범주의 틀²⁾ 속에서 이들의 범주설정에 초점이 모아졌다. 즉 이들이 문장 내에서 출현하는 위치나 수식대상에 따른 범주 설정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이들이 수식하는 요소와의 직접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 이들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들 표현과 의미 즉 통사적인 면과 의미적 특성이 하나의 원리나 원칙에 따라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범주 설정은 물론이고 의미적 특성에 대한 기술은 형태적 특성이나 위치에 의한 분류에서 벗어나 문법적 기능, 바꾸어 말하면 함수-논항 관계에 따라 분류되고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문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이므로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함수와 논항관계로 기술하는 것은 형식화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함수-논항과의 관계로 체계적으로 기술하려고 하였던 Ajdukiewicz(1935)의 범주문법(categorial grammar)의 문법모형과 Davidson(1967)의 사건구조 의미론(event structure semantics)을 모형으로 삼아 중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표현들이 갖는 의미적 특성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우선 범주문법은 기본범주로부터 파생범주를 유도하는 두 개의 범주규칙과 이들 범주를 결합하는 형성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언어를 기술하기 위한 보

1) 범주(category)는 철학의 용어이지만, 품사(parts of speech)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2) 문법적 범주를 8품사로 대분류하고 이들 8품사의 범위 내에서만 문법적 관계를 기술하려고 하였다.

편문법은 물론이고 특정언어의 문법 역시 체계적 기술은 바로 범주 설정이 일차적 관심사이고, 이들 범주로부터 더 큰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3품사로 분류하기도 하였고, 5품사, 8품사 등으로 품사의 범주를 확대해 갔으나, 범주 문법에서는 기본 범주(여기서는 s와 n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부터 수많은 파생범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주의 확장이 대단히 유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 파생범주를 범주로 열거하는 데는 적어도 8품사 보다는 더 많은 범주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 문법의 범주 설정과는 대단히 상이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단순한 두 개의 범주로부터 더 많은 파생범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한수의 범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위적 결합과정을 보여주는 변형문법과는 달리 범주문법은 대단히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변형생성문법은 두 표현간의 결합과정은 몇 개의 범주 간의 관찰적 가설에 근거한 단순 결합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범주문법은 적어도 두 표현간의 유기적 관계 즉 함수-논항(function-argument) 관계로만 기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결합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나아가서 변형생성문법이 지니고 있는 표현간의 결합과정만을 기술한 통사적 관계는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간의 의미적 관계 즉 문법이 추구하는 표현과 의미와의 상관관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이다. 그러나 범주 문법에서는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범주문법은 명시적인 의미 기술체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범주 문법이 표현과 의미사이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표시가 추상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 수단으로도 사건구조 의미론을 부가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구조 의미론은 Davidson(1967)에서 제시한 사건구조 의미론이 Hector-Neri Castaneda(1967), Parsons(1990), Kenny(1963)를 거치면서 이른바 아원자 의미론(subatomic semantics)로 발전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아원자 의미론의 모형을 범주문법에 부가함으로써 在, 給, 跟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어의 품사 분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給, 跟, 在의 품사 분류에 따른 종래 연구를 개괄하였다. 특히 이들 표현은 개사, 연사, 동사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문법적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서로 다른 범주를 설정할 합당한 분석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이들 표현의 의미를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의 모형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종래의 논란이 되었던 범주 설정의 문제를 포함한 의미적 특성에 따른 형식화를 기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給, 跟, 在를 분석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기재로서 범주문법의 모형과 사건구조 의미론의 개요를 밝히고 이 두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給의 범주 설정 및 의미 기술의 문제를 제기하고 給은 동사나 개사로서 분류하는 것보다는 상조동사로 분류함으로써 給의 통사 의미적 관계를 보다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특히 給가 나타내는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종래 給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제기된 많은 문제를 보다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이른바 연사, 개사로 간주하였던 중국어의 跟은 대동사(pro-verb)로서의 기능에 의하여 통사·의미적 특성을 기술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6장에서는 在의 통사 범주를 문법적 기능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사, 전치사, 연동사라는 종래의 주장이 합당하지 못함을 밝히고 在는 상조동사임을 논의함으로써 在가 나타나는 문장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7장은 결론으로 제3장에서 논의한 給, 제4장의 跟, 제5장의 在에 대한 종래의 품사 분류에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개괄하고,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에 의하여 통사적 기능과 명시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요약하였다.

II. 중국어의 품사분류와 앞선 연구

1. 품사 분류

언어를 기술하기 위한 선제적 요건은 무한수의 어휘를 소수의 범주로 분류하고 이러한 범주를 중심으로 유한수의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무한수의 표현을 기술하는 것이 언어 연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무한수의 어휘들을 분류하는 일을 범주화(categorization), 부류화(classification), 또는 품사(parts of speech)라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자연언어인 중국어를 기술하고 형식화하기 위한 일차적 관심사는 품사로 분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의 품사 분류에 대한 논의는 1898년 마건충(馬建忠)이 『마씨문통(馬氏文通)』에서 유럽어 문법체계를 원용하여 고대중국어의 품사를 분류한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학자들이 유럽식 품사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각각의 품사가 갖는 문법적 기능이 대단히 자유스럽기 때문에 품사와 문법기능 사이에는 고정된 대응관계를 찾기 힘들다. 예컨대 중국어의 동사와 형용사는 형태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는 주어, 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등 모든 문장성분이 될 수 있다. 즉 품사와 기능 사이에 밀접한 대응 관계가 없다(조희무, 2008).

그러나 형식화의 전제조건이 무한수의 원소를 집합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합을 소수의 규칙에 의하여 더 큰 구조의 표현을 유도하고 기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어에 있어서 품사 분류의 문제를 근본적인 입장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중국어의 어휘는 굴절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성분이 없기 때문에 흔히 고립어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품사 분류의 의미가 다른 여타 언어와 비교하여 그 효과나 한계에 제한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어의 품사는 형태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3) 영문법의 'parts of speech'는 라틴어의 'partes orationis'를 번역한 것으로, 라틴어 'oratio'는 '문장(sentence)'이라는 뜻도 있고 '말(speech)'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Ben Jonson(1640)이 이를 'parts of speech'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 발단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송경안 외, 2008).

것이 아니라 오직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품사는 낱말의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특징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예를 들면 Thrax는 명사를 통사적으로 문장요소를 형성하면서 형태적으로 격 표지를 가지며 의미적으로는 사물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Broschart, 2002: 663). 특히 의미적 특징에 따른 기준에 따르면 중국어의 어휘는 실사(實詞; 實字)와 허사(虛詞; 虛字)의 양대류로 분류하였다. 실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를 가리키고, 허사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여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실사와 함께 쓰여 문법적인 기능만을 나타내는 어휘를 가리킨다(조희무 외, 2008). 그러나 현대 중국어의 어휘 분류는 명사(名詞)·동사(動詞)·형용사(形容詞)·수사(數詞)·양사(量詞)·대사(代詞)·부사(副詞)·상성사(象聲詞)·개사(介詞)·연사(連詞)·조사(助詞)·탄사(歎詞) 등 1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12개의 품사 가운데에는 명사(名詞)·동사(動詞)·형용사(形容詞)·수사(數詞)·양사(量詞)·대사(代詞)·부사(副詞)·상성사(象聲詞)는 실사로 분류하고 개사(介詞)·연사(連詞)·조사·탄사(歎詞)는 허사로 분류하고 있다(조희무 외, 2008). 이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의미·기능·형태’로 설정하고 있으며, 실사는 의미적 기준에 의한 분류이고, 허사는 기능어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주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능과 문법적 기능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문법적 기능이란 하나의 문장 내에서 어떤 범주의 표현이 주어나 목적어 또는 술어나 수식어로 역할을 하는 경우와 단순히 구성성분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갖지 않는 연결기능과는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능은 연결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법적 기능과 구별하기 위해서 연결기능이라고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사, 연사, 조사, 탄사를 ‘연결기능’에 의한 분류라고 규정함으로써 품사는 구성요소를 확대하기 위한 형식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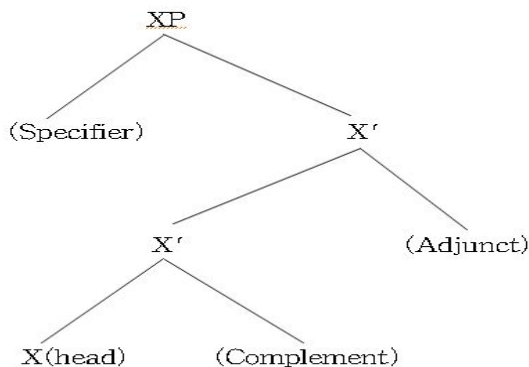
그런데 반해서 어휘가 갖는 문법적 기능은 형식적 기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영어의 형용사 *tall*은 의미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지만, *tall tree*에서 *tall*의 문법적 기능은 수식(modifier)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The tree is tall*에서처럼 서술적(predicate)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듯 ‘기능’이라는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자는 연결어(connective relational word)와 문법적

함수어(grammatical functional word)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1) a. John shot her with a gun.
- b. John shot [her [with a gun]].
- c. [[John shot her] [with a gun]].

(1a)의 전치사구 *with a gun*은 선행하는 요소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수식관계 즉 함수-논항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식관계 즉 통사적 관계는 상이하다. 동일한 전치사구 *with a gun*은 (1b)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어 *her*를 수식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1c)처럼 문장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전치사구라고 하더라도 (1b)에서처럼 전치사구의 논항이 *her*인 경우와 (1c)처럼 문장이 논항이 되는 경우는 상이하다. 이렇듯 문법적 기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 전치사구로 다루는 것은 합당한 문법 기술이 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종래 품사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던 ‘기능’은 ‘형식적 기능’ 또는 ‘연결어 기능’으로서 문법적 기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본고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문법적 기능’은 이른바 구성요소 사이의 ‘함수-논항(function-argument)’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핵어(head)와 보충어(complement) 그리고 부가어(adjunction) 사이의 문법적 기능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Aarts, 2001: 119).

(2)



즉 수형도 (2)에서 보는 것처럼 (1b)의 문법적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핵어 *her*와 부가어 *with a gun* 사이의 함수-논항 관계라 한다면, (1c)의 경우에 있어서는 핵어는 *John shot her*라는 문장과 부가어 *with a gun* 사이의 함수-논항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문법적 관계는 전치사구 *with a gun*이 *her*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와 문장 *John shot her*를 논항으로 취하는 문법적 관계는 대단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품사 분류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겸류사(兼類詞)이다(조희무 외, 2008). 중국어의 어휘 가운데는 하나의 어휘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형태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미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어의 어휘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는 오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중국어에 있어서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갖는 경우 이를 겸류사로 분류하고 있다.

- (3) a. 向 上 級 報 告
 to higher authorities report
 b. 'A report to the higher authority'
 c. '(Someone) reports (it) to the higher authority'

(3a)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서로 다른 범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3b)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는 명사구로서 역할을 하지만, (3c)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는 문장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3a)의 구조를 문장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명사구로 간주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 (4) a. 向 上 級 報 告
 to higher authorities report
 b. 向 上 級 的 報 告
 to higher authorities Poss report

(4a)는 이른바 중의적 표현인데 반해서 (4b)는 명시적인 명사구이다. 만일 (4a)

가 중의적 표현으로서 명사구로서 기능을 한다면 (4b)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a)와 (4b)는 동일한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희무 외(2008)에서 검류사로 분석한 (3a)의 報告(report)를 동사 또는 명사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의 어휘가 명사나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서 명사가 동사화 할 수 있는 현상을 영어에서는 명유래동사(denominational verb)라고 한다(Yang, 2001:110).

(5) a. Who can **bell** the cat?

b. Nobody will **stone** the conscientious politician.

(5a)의 *bell*은 물론이고 (5b)의 *stone*은 본래 명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의 각각에서 이들 명사는 동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⁴⁾ 따라서 형태적 특성만으로 이들 어휘를 명사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한 분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적 특성에 의하여 품사를 분류하거나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연언어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중국어의 어휘 가운데 두 개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을 검류사로 분류하는 것은 품사 분류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된다.

이렇듯 어떤 어휘가 몇 개의 품사로 분류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문법기술의 복잡성을 초래할 뿐으로 품사와 관계없이 문법적 기능이 무엇이냐에 중점을 둔다면 보다 간결한 문법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즉 구조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어류가 갖는 문법적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품사 분류의 문제는 문법적 기능에 우선할 수 없다. 예컨대 의미적 기능에 의하여 품사를 분류한다면 사건을 나타내는 요소 가운데는 형용사는 물론이고 동사도 이에 해당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에 따라서는 명사나 형용사가 계사 없이 직접 술어로 쓰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경우 형용사는 술어로 쓰일 수 있고, 중국어에서는 형

4) 이러한 명유래동사 가운데는 *taxi*, *bus* 등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동사로 쓰일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명사에 동사 -하다를 부가하여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공부하다, 일하다, 떡하다, 술하다.

용사나 명사가 계사를 동반하지 않는 술어로 쓰일 수 있다(송경안, 2008).

- (6) a. John is honest.
 b. John is an honest man.
 c. John is conscious of his mistake.

- (7) a. 영화는 예쁘다.
 b. 今天 很 熱.
 today very hot
 'It's very hot today.'
 c. 今天 星期二.
 today Tuesday
 'Today is Tuesday.'

(6)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에 있어서는 계사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서술어로 쓰이고 있지만, (7a)에서는 형용사 **예쁘다**가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7b)의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처럼 형용사 熱(hot)이 주어 今天(Today)의 서술어로 쓰이면서도 계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며, (7c)에서는 주어 今天과 명사구 星期二(Tuesday) 사이에는 계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명사구 星期二是 서술어로서 기능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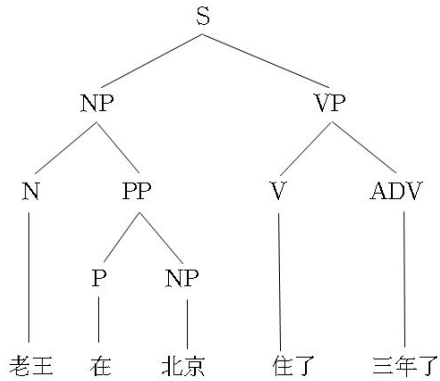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적 특성 외에도 품사의 분류가 대단히 자유로운 경우가 있다.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개사와 동사는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문법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범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 개사는 영어의 전치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개사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은 원래 동사에 근간을 두고 있다(조희무 외, 2008).

- (8) a. 老王 在 北京 住了 三年了. (개사 = 전치사)
 Mr. Wang in Beijing lived 3 years
 'Mr. Wang has lived in Beijing for 3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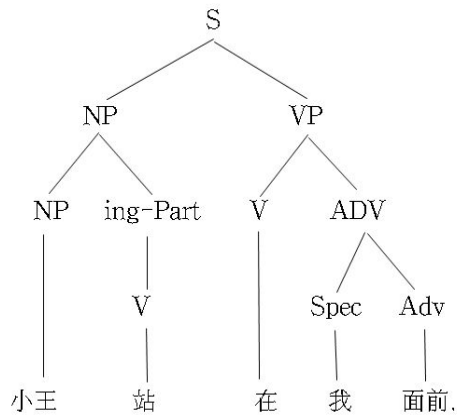
- b. 小王 站 在 我 面前. (동사)
 Mr. Wang stand be I front
 'Mr. Wang stands in front of me.'

(8)의 在(be)는 개사로서 분류할 수도 있고, 동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선 (8a)의 在를 개사로 분류한 것은 본동사는 住(live)가 본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在北京(in Beijing)은 전치사구로 간주할 수 있다는데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8b)의 在는 본동사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8)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결과이다.

(9)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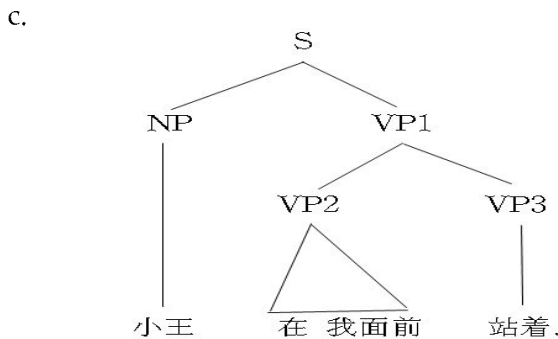
(9a)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在北京은 명사구 老王(Mr. Wang)을 수식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치사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9b)의 在를 본동사로 간주한다면, 동사 站(stand)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在를 본동사라고 한다면 (9b)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站은 주어 小王的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사 站이 주어 小王的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라면 (8b)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10) * 'Mr. Wang who is standing in front of me exists.'

그러나 (8b)의 의미는 (10)과 같이 해석될 수 없다. 즉 '내 앞에서 있는 소왕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해석은 불가하다. 따라서 (8b)의 在는 본동사로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8a)의 在가 전치사라고 한다면 (8b)의 在 역시 전치사라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11) a. 小王 站 在 我 面前.
 Mr. Wang stand be I front
 'Mr. Wang stands in front of me.'
- b. 小王 在 我 面前 站着.
 Mr. Wang be I front stands
 'Mr. Wang stands in front of me.'



(11a)를 (11b)와 같이 바꾸어 써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11a)의 在가 동사라면 在我面前(be in front of me)은 동사구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11b)처럼 동사구 在我面前을 동사 站 앞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b)의 站이 본동사임에도 在我面前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在我面前은 동사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11c)는 (11b)의 수형도이다. (11c)에서 보는 것처럼 在我面前이 동사구라면 VP1은 [VP2 + VP3]으로 이루어진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11c)가 합당한 구조이기 위해서는 VP1이나 VP2 가운데 어느 하나는 적어도 조동사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요소도 조동사 구조로 간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11c)의 수형도가 합당한 구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在我面前이 동사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8a)의 在北京이 동사구가 아니라는 것은 두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12) a. 老王 [在北京] [住了三年了].
 b. 小王 [在我面前] [站着].⁵⁾

즉 (12a)와 (12b)의 구조는 [주어] [전치사구] [동사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2b)의 在我面前的 在가 동사가 아니라는 것은 (13a)와 (13b)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13) a. 小王 站 在 我 面前.
 Mr. Wang stand be I before
 'Mr. Wang stands in front of me.'
 b. 小王 坐 在 椅子 上.
 Mr. Wang sit be chair on
 'Mr. Wang sits on the chair.'

5) (12)는 예문 (8)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다.

(13a)에서 站이 본동사임으로 在는 동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며, (13b)에서도 坐가 본동사임으로 在는 동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설정한 ‘의미, 기능, 형태’가운데 ‘기능’은 연결어 기능이나 형식적 기능으로서 문법적 기능과는 구분되어야 함을 보았다. 또한 의미를 실사와 허사로 하위범주화 하면서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능은 의미의 하위범주임을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기준으로서 ‘의미, 문법적 기능, 형태’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함을 논의하였다. 나아가서 조희무 외(2008) 등에서 제시한 것처럼 하나의 어휘를 몇 개의 품사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한 문법기술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예컨대 在를 전치사로 분류할 수도 있으며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2. 給, 跟, 在에 대한 앞선 연구

중국어 給, 跟, 在에 대한 통사 의미적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들 표현에 대한 종래의 연구를 개괄해 보고, 이들 연구의 관점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 표현의 통사적 범주는 개사, 동사, 연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학자에 따라 다르고, 접근방법 또한 다양하여 동일한 기능에 대한 형태적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들 표현의 문법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이들 표현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給의 특성

기존의 관점에서 중국어 給는 통사적으로 동사, 개사, 조사의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로 給가 동사라는 것은 시제를 나타내는 요소 ‘了, 過’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呂叔湘, 1999).

(14) a. 那本 書 我 給 你 了.

That book I give you PAST

'I gave you that book.'

b. 給 了 他 一 張 票.

give PAST him one ticket

'(I) gave him a ticket.'

(14)에서 보는 것처럼 시제 표시자 了나 過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은 給가 동사임을 말해준다.

이렇듯 給는 [+GIVE]라는 명시적 행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비명시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給는 구체적인 동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경우도 있다(劉月華 外, 1983).

(15) a. 給 了 他 兩 腳. (= 踢他兩脚)

give PAST him two kick

'(I) kick him two times.'

b. 給 他 几 句. (= 說他几句)

give him some talk

'(I) give him some talk.'

(15a)에서 보는 것처럼 본동사 給는 踢(kick)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給가 踢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목적어 명사구 脚(kick)로부터 유추된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給는 구체적인 행위 踢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b)에서도 給는 동사 說(talk)의 의미로 해석되며 따라서 給는 說를 대신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동사로서 給는 문두에 나타날 수 있으며 직접목적어 뒤에는 동사도 나타날 수 있다.⁶⁾ 이러한 경우는 직접목적어인 명사가 겹어로 간주된다. 바꾸어 말하면 명사구 這快空地는 給의 직접목적어인 동시에 부사어로서 기능을 한다는

6) 이러한 구조는 영어에서는 관계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국어에는 관계사가 없기 때문에 복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것이다(맹주희, 2002).

(16) a. 給 學校 這塊 空地 作 操場.

give school the extra space use play ground

‘(Someone) give the school the extra space to use for play ground.’

b. 給 我 一 壺 開 水 沏 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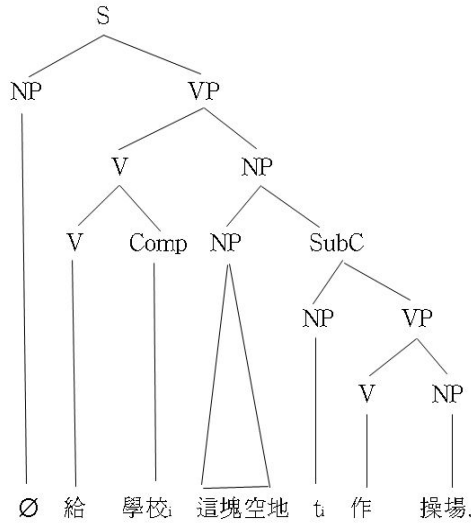
give me one kettle boil water pour tea

‘give me one kettle of boiled water to mix tea.’

(16)과 같은 給구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 생략과 겹어구를 가진 문장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다. 첫째, 중국어가 갖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흔히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주어는 맥락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 (16)에서는 명시적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유추할 수 있거나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회복 가능한 경우라 할 수 있다. (16a)에서는 기부자(donator)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고 (16b)에서는 명령문으로 판단되어 給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6a)의 這塊空地(the extra space)의 범주를 명사구로도 간주할 수 있고, 부사구로도 간주할 수 있다는 논의에 근거하여 이를 겹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서술어를 갖는 이른바 핵문(kernel sentence)의 입장에서 (16a)를 이른바 복문(complex sentence)로 해체하여 분석한다면 이러한 겹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7)



단 Comp= 보충어(complement)로서 給가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간접목적어이고 SubC = 종속절(subordinate Clause)을 의미하며, ti는 學校i의 흔적(trace)이다.

(17)의 수형도에서 모문의 주어인 NP는 표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으로 일반적으로 복원 가능한 기부자(donator)를 의미한다. 그리고 給의 간접목적어는 반드시 공기하는 명사구로서 통사적으로는 보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6a)는 핵문 구조가 아닌 것은 給라는 상위문의 동사라고 할 수 있으며, 作는 하위문의 동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6)은 복문구조로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呂叔湘(1999)에서 這塊空地는 給의 직접목적어라는 점에서 명사구라 할 수 있으나 보문절에서는 부사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這塊空地는 명사구와 부사구라는 겹어류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給의 간접목적어 學校는 하위문에서는 주어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듯 하위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목적어로 이동하는 경우를 주어-목적어 상승(subject to object raising, Postal, 1974: 40-43)으로 설명한다면 (16)의 구조는 복문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하나의 표현을 겹어류로 간주하여 서로 다른 품사를 부여함으로써 복잡성을 야기하였으나, 이들 표현이 갖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의미적 특성

을 기술한다면, 이들 표현은 모두 동일한 명사구로서 간접목적어 기능을 갖는 경우와 부사적 기능을 갖는 경우로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찬가지로 (16b)에 있어서도 給의 간접목적어는 명사구 我이며, 직접목적어는 一壺開水(a kettle of boiled water)이다. 그러나 하위문에서 一壺開水는 도구격이라는 점에서 부사구로 분류한다면 이 또한 겹어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一壺開水는 두 개의 품사가 아니라 단일 명사구이면서, 상위문에서는 목적어이고 하위문에서는 도구격으로 명사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문에서 주어는 상위문의 간접목적어 我이며 我是 하위문의 주어에서 상승이동한 경우이다. 이렇듯 의미적 특성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는 것보다 문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언어 기술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呂叔湘(1999)에서는 給의 특성에 관한 논의 가운데 “給의 직접목적어는 그의 뒤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을 문장의 구조적 관점으로 본다면, 給의 직접목적어는 하위문의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8) 給 我 一 杯 水 喝. (給一杯水, 喝水)

Give I a cup water drink

‘Give me a cup of water to dr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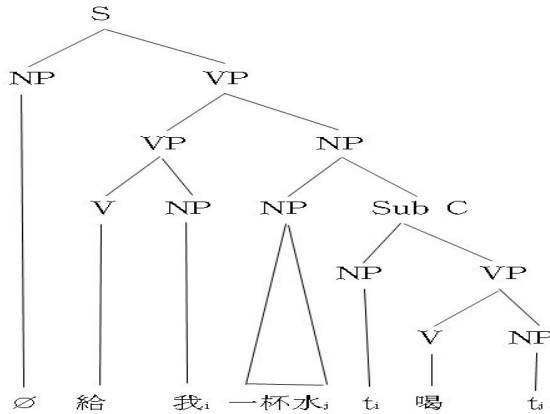
(19) 給 你 一 點 兒 嘗 嘗. (給一點兒, 嘗一點兒)

give I a little taste

‘Give me a little to taste.’

(18)의 상위문은 給我一杯水이고 하위문은 我喝一杯水이다. 상위문에서 給의 직접목적어는 一杯水이고, 하위문 喝의 목적어 역시 一杯水이다.

(20)



(20)의 수형도에서 상위문의 명사구 一杯水는 給의 직접목적어이며 동시에 하위문 동사 喝의 목적어이다. 그리고 상위문의 간접 목적어 我是 하위문의 喝의 주어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목적어 상승변형이 적용된 경우이다.

呂叔湘(1999)에서는 상위문과 하위문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문장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위문과 하위문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둘째 개사로서 중국어 給는 실제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문장 내에서 개사빈어와 함께 쓰이어 술어 동사 앞에 위치하는 어법적 특징을 갖는다(김현숙, 2006).

우선 개사로서 역할을 하는 給는 의미적으로는 항상 수령자(receiver)와 함께 쓰인다.

(21) a. 我 給 朋友 買了 本 書.

I give friend bought a book
'I bought the friend a book.'

b. 我 給 你 畫了 張 畫.

I give you draw a picture
'I paint a picture to you.'

c. 我 把書 給 你 弄丟了.

I book give you lost

‘I lost your book.’

(21a)의 給는 朋友를 그리고 (21b)의 給는 你를 수령자로 요구한다. 이 경우 수령자(receiver)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benefiter)일 수도 있고, 피해자(patient)일 수도 있다. (21a)에 朋友는 단순한 수령자이지만, (21b)에서 你是 수혜자이고 (21c)에서 你是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수혜자나 피해자를 나타내는 것은 수령자의 의미적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수혜자 다음에 오는 동사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給가 개사로 쓰이는 경우, 수령자, 수혜자, 피해자를 수반하는 구조는 [給 + 수령자 + 동사]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 가운데 동사의 특성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의 의미가 결정된다.

또한 呂叔湘(1999)에서도 給가 개사로 쓰이는 경우는 동사 앞에 놓이어 교부나 지불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22) a. 你 給 我 來 封 信.
 you give I send a letter
 ‘You send a letter to me.’

b. 我 給 他 去 個 電 話.
 I give he call a phone
 ‘I call him.’

(23) a. 我 留 給 你 鑰 匙.
 I leave give you key
 ‘I leave a key to you.’

b. 你 交 給 我 一 封 信.
 you pass give I a letter
 ‘You pass a letter to me.’

(22a)의 예에서는 給 다음에 동사 來가 오는 경우이고 (22b)에서는 給 다음에 동사 去가 오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23a)에서는 給 앞에 동사 留가 나타나

는 경우이고 (23b)에서는 給 앞에 동사 交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렇듯 給가 개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給와 공기하는 목적어를 생략하더라도 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給가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呂叔湘(1999)에서는 조사 給는 동사 앞에 나타나며 조사가 없는 표현과 의미상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구어체나 능동문에 쓰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 (24) a. 他 把衣服 給 晾干了.
 he clothes give dried
 'He dried the clothes.'
- b. 讓 我 把杯子 給 打碎了 一个.
 let I cup give broke one
 'I broke a cup.'

2) 跟의 특성

중국어 跟은 본래 명사적 의미를 갖는 요소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조사, 연사 및 개사로 발전하였다. 현대 중국어의 개사는 대다수가 고대 중국어의 동사로부터 변천되어 왔다. 그런데 어떤 동사는 변화의 속도가 비교적 느려서 동사와 개사의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고, 어떤 동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동사가 지니고 있는 합의와 어법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거의 완전히 개사가 되었다(김현숙, 2006). 일반적으로 개사는 명사, 대사 혹은 사조 앞에서 쓰여서 개사구조를 구성하여 동사 혹은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고, 처소, 방향, 시간, 대상 원인, 목적, 수단 등을 표시하는 품사이다(김현숙, 2006). 특히 개사로서 跟은 일차적으로 '공동으로'의 의미나 '관련유무',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 개사는 연사와 더불어 단어나, 구, 구문을 연결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동일한 범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劉月華, 1983:183). 개사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구 앞에 놓이어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서술하기도 하며 장소, 방향, 대상, 원인, 목적, 수단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김현숙(2006)에서는 연사와 개사의 상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연사는 동행하는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25) a. 今天 我 跟 他 去 看 電影.
 today I and he go watch movie
 'Today I and he go to watch movie.'

b. 今天 他 跟 我 去 看 電影.
 today he and I go watch movie
 'Today he and I go to watch movie.'

(26) a. 我 跟 他 借 錢.
 I and he lend money
 'I lend him some money.'

b. 他 跟 我 借 錢.
 he and I lend money
 'He lend me some money.'

(25)에서 보는 것처럼 (25a)의 주어와 跟의 목적어를 서로 바꾸어 놓아도 (25)의 두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6)에서도 跟과 동행하는 我와 他的 위치를 바꾸어 써도 (26a)와 (26b)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데 근거하여 跟을 연사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연사는 연결기능만 할 뿐인데 반해서 개사는 수식기능을 갖는다고 보다.

(27) a. 我 跟 他 都 是 北京 人.
 I and he all be Beijing citizen
 'I and he all are Beijing citizen.'

b. 我 跟 他 約好 星期天 去 長城.
 I and he appointment Sunday go the Great Wall
 'I have an appointment with him to go to the Great Wall on

Sunday.’

- (28) a. 我跟他都是北京人。
 I and he all be Beijing citizen
 ‘I and he both are Beijing citizens.’
- b. 我是北京人，并且他是北京人。
 I be Beijing citizen and he be Beijing citizen
 ‘I am Beijing citizen and he is Beijing citizen.’

(28a)의 跟을 연사로 간주한 것은 跟은 두 명사구의 결합이라는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8a)는 (28b)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跟은 두 명사구의 결합이며 두 명사구의 결합이라는 것은 (28b)와 같은 기저 구조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개사로 쓰이는 跟은 접속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a)를 (29b)와 같이 풀어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김현숙, 2006).

- (29) a. 我跟他約好星期天去長城。
 I and he appointment sunday go the Great Wall
 ‘I make an appointment with him to go to Great Wall.’
- b. * 我跟他約好星期天去長城，并且他跟我約好星期天去長城。
 I and he make an appointment go the Great Wall on Sunday,
 and he and I make an appointment go the Great Wall on Sunday.
- c. * 我約好星期天去長城，并且他約好星期天去長城。
 I have an appointment to go to Great Wall on Sunday and he has an appointment to go to Great Wall on Sunday.

이러한 논의에 따른다면 다음 문장에 쓰이고 있는 跟은 연사인지 아니면 전치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0) a. 我 跟 他 買 了 ‘素食主義者’ 這 本 書.
 I and he bought The Vegetarian this book
 ‘I bought the book, The Vegetarian, with him.’
- b. 我 跟 他 在 北 京 生 活.
 I and he at Beijing live
 ‘I live at Beijing with him.’

(30a)의 의미로 나와 그가 함께 Man Booker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각각 채식주의를 구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나와 그가 각각 독립적으로 책을 구매한 경우라면 연사로 해석될 수 있고, 공동으로 한편의 책을 구매한 경우라면 跟은 개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30a)의 의미는 (31a)로도 해석될 수 있고, (31b)로도 해석될 수 있다.

- (31) a. I bought The Vegetarian and he bought The Vegetarian.
 b. I bought The Vegetarian with him.

(30a)의 跟에 대해서 두 명사의 연결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수식기능을 하느냐에 의하여 연사와 개사로 분류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되지 못한다. (30a)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跟이 접속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수식기능을 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주동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주동사가 상태동사인 경우에는 跟은 연사로서 기능을 하지만, 행위동사인 경우에는 跟은 개사로 기능을 한다. (28a)에서 보는 것처럼 是와 같은 계사이거나 상태동사인 경우는 연사의 의미를 갖지만, 동작동사인 경우는 개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연사와 개사는 두 구성성분을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 통사적으로 동일한 관계라 할 수 있다.

3) 在의 특성

중국어의 給, 跟은 물론이고 在 역시 서로 다양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在의 기능이 대단히 다양하다는 데서 在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給, 跟 등은 연결어(연사, 개사)의 특성에서 변별적 특성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면 在는 동사로서의 기능과 개사로서의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데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在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개사로 쓰이는 경우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在를 동사로 간주할 경우 동사는 실사이므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2) a. 我 在 家.

I at home

'I am at home.'

b. 我 買 書.

I buy book

'I bought a book.'

(32a)의 동사 사다나 있다는 실사이므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에 반해 허사인 개사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33) a. 我 在 家 看 報紙.

I at home read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at home.'

b. 我 在 家 玩.

I at home hang out

'I hang out at home.'

(33a)와 (33b)의 집에서의 在는 개사로서 명사 家와 더불어 개사구조를 이루며

동사구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말해준다. 즉 신문을 읽고 있는 장소가 家라는 명제로서 신문을 읽다는 사실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한다.

- (34) 看 報紙 的 地方 是 家.
 read newspaper poss place be home
 ‘The place where I read the newspaper is home.’

특히 (32a)와 (33a)의 在家는 동일한 구조임에도 전자를 생략하면 비문이 유도되는 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사와 개사의 특성이 들어난다. 또한 동사와 개사의 화용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기능을 하느냐의 여부이다(김현숙, 2006).

- (35) a. 你 在 家 嗎?
 you at home Q
 ‘Are you at home?’
 b. 在 家.
 at home
 ‘Yes, I am.’

- (36) a. 你 在 家 看 報紙 嗎?
 you at home read newspaper Q
 ‘Do you read the newspaper at home?’
 b. *在 家.
 at home
 ‘Yes, I am.’

(35)와 (36)은 형태적으로 동일하지만, (35b)에서 보는 것처럼 在家는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있으나 (36)에서 在家는 명시적 대답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동사와 개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런데 반해서 在가 개사라 할지라도 의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도 있다. 김현숙(2006)에 따르면 개사 가운데 在, 用, 到와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개사구가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37) a. 你 在 哪 工作?
 you at where work
 'Where do you work?'
- b. 在 家.
 at home
 'At home.'

(37)의 경우, (37a)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37b)와 같은 개사구가 대답이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36b)의 在家나 (37b)의 在家는 모두 개사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비문법적인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질문의 초점(focus)에 따른 것이다. 즉 김현숙(2006)에서 지적한 것처럼 동사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답으로 쓰일 수 있는데 반해 개사구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은 초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동사와 개사의 구분은 질문에 대한 대답의 가능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개사와 동사의 변별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중첩사용의 가능성이다.

- (38) a. 我 看 看 報紙.
 I read read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38)에서 보는 것처럼 (38a)의 看은 동사이다. 따라서 동사의 중첩 가능성에 따라 (38a)는 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마찬가지로 (32a)에서 살펴본 것처럼 在는 동사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在가 동사라면 동사는 중첩 사용의 원칙에 따라 (38b)처럼 在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b)가 비문법적인

것은 동사의 판단근거로서 중첩 현상은 합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개사로서 在와 동사로서 在에 대한 몇 가지 특성 외에도 在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시제조사了를 첨가할 수 있다거나, 정반의 질문이 가능하다거나 등의 특성을 갖는다.

- (39) a. 你 看 不 看 報 紙?
 you read not read newspaper
 'Do you read or not read the newspaper?'
 b. 你 在 不 在 家?
 you at not at home
 'Are you at home or not?'

(39a)는 물론이고 (39b) 역시 문법적이라는 데서 看은 물론이고 在 역시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중국어 給, 跟, 在는 이들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의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함수-논항 관계로 단순화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 다양한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두 의미 유형사이의 함수-논항 관계로 기술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4장에서는 給, 5장에서는 跟, 그리고 6장에서는 在의 품사 분류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들이 갖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給, 跟, 在의 함수-논항 간의 관계로 기술하기 위한 기재로서 다음 장에서는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을 개괄 요약한다.

III.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

전통적으로 문법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전제는 문법기술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범주 설정의 초점은 범주의 수를 몇 개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다수의 어휘를 소수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언어기술의 일차적 관심사가 된다. 영어에서는 기본 범주를 8개로 규정하고 이들 범주의 상위 범주로 구범주(phrasal category)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8개의 기본범주로는 모든 구성요소를 분류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 (1) a. at the school
- b. out of date
- c. in that he is genius

(1)의 *at*, *out*, *in*은 모두 전치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치사가 갖는 기능은 서로 상이하다. 즉 (1a)의 *at*의 논항(argument)은 명사구 *the school*이라고 할 수 있고, (1b)의 *out*의 논항은 *of date*라는 전치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1c)의 *in*은 문장 *that he is genius*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at*, *out*, *in*을 하나의 범주 즉 전치사라고 한다면 전치사의 통사적 기능 즉 전치사가 갖는 논항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전치사에 대한 명시적 정의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

이렇듯 전치사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한다면 이들 전치사의 기능을 간과함으로써 범주 설정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They love Mary*에서 *love* 역시 명사구 *Mary* 앞에 놓이어 *Mary*와 앞말 즉 *they*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love* 역시 전치사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치사가 갖는 논항에 따라 이들 전치사의 특성을 정의한다면 (1a)의 *at*는 명사구 앞에 놓이는 이른바 명전치사라고 해야 할 것이고, (1b)의 *out*은 전전치사라고 해야 할 것이며 (1c)의 *in*은 문전치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논항에 따른 전치사의 분류를 세분화한다면 품사 분류의 문제는 더욱 복잡

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적인 범주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서도 논항의 특성에 따라 이들 표현이 갖는 범주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범주문법이다.

1. 범주문법

범주문법은 Ajdukiewicz(1935)가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Bar-Hillel(1953), Lambek(1961) 등에서 수정, 확대된 문법모형으로 확대범주문법(extended-categorial grammar)이라고도 칭한다. 범주문법은 제한된 기본 범주로부터 파생범주를 만들어내고, 이들 범주들이 결합하는 과정은 범주들 사이의 연산(operation)에 의하여 더 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결합과정을 거친다. 특히 범주문법은 통사부와 의미부가 동일한 연산에 의하여 결합되는 과정을 보임으로써 표현과 의미사이의 관계를 1:1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범주문법의 통사부를 구성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⁷⁾

(2) 범주규칙

- a. 기본범주: $s, n \in \text{Category}$
- b. 파생범주: If $\alpha, \beta \in \text{Category}$ then
 α/β or $\alpha \backslash \beta \in \text{Category}$

기본범주는 s 와 n 이다. 즉 s 는 문장(sentence)을 나타내고 n 은 이름(name)을 나타낸다. 또한 더 큰 범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두 개의 기본 범주를 기초로 하여 더 큰 파생범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컨대 (2b)의 규칙에 따라 $s/n, n/s, s/n/s/n/, n/n/n$ ⁸⁾과 같은 무수한 범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범주규칙을 기초로 하여 더 큰 구조를 만들어내는 형성규칙은 다음과 같다(Lambeck,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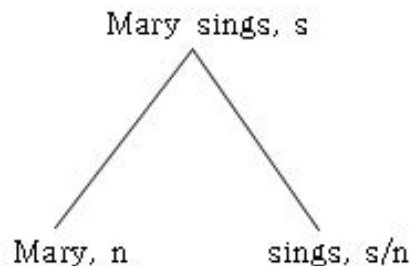
7) 최성훈, 서월아(2016)에서 제시한 범주문법의 틀은 이영현(2004) 등에서도 간결하게 요약되었다.

8) 그러나 실제로 이들 범주가 자연언어의 표현을 규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 (3) 형성규칙 a. $Y + X/Y = X$
 b. $X/Y + Y = X$

(3)의 형성규칙은 두 범주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임의 범주가 Y 이고 또 다른 임의의 범주가 X/Y 라고 한다면 두 범주가 결합된 표현은 X 라는 범주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3b)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하는 범주가 X/Y 이고 여기에 결합될 범주가 Y 라면 이들 두 범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범주는 X 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X/Y 는 함수 범주이고 Y 는 논항범주이다. 바꾸어 말하면 두 범주 Y 와 X/Y 사이에는 함수-논항 관계 즉 연산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예컨대 n 의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 이름(name)과 s/n 의 범주에 해당하는 동사라는 범주들이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s 라는 범주가 유도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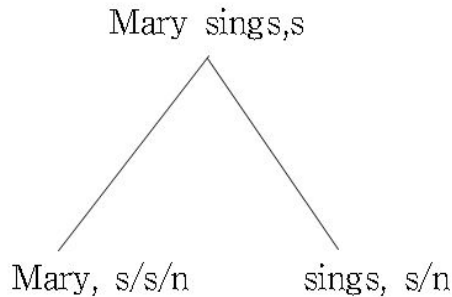


(4)에서 보는 것처럼 *sing*은 함수자(functor) 표현으로서 *Mary*를 논항(argument)으로 취하여 문장이 유도된다. 뿐만 아니라 함수자와 논항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합과정은 동일하다. (4)에서 본 것처럼 *Mary*를 논항으로 간주하고 *sing*을 함수자로 간주하여 이른바 $X + X/Y$ 의 결합관계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Mary*가 *sing*을 논항으로 취한다면, (3b)의 $X/Y + X$ 의 구조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Mary*의 외연(denotation)을 개체(individual)로 간주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Mary*는 속성의 집합(set of properties)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Mary*의

외연은 *Mary*라는 개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Mary*가 가지고 있는 속성 예컨대 {노래하거나, 춤을 추거나, 잠을 자거나, 걷거나} 하는 등의 속성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어 *Mary*가 동사 *sing*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논항 관계로 다를 수도 있다.

Ajdukiewicz(1935)에 의하면 형성규칙 (3a)는 함수자가 논항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이고, (3b)는 함수자가 논항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함수자가 어느 쪽에 위치하든 간에 함수자는 논항을 취하여 새로운 범주를 유도해낸다. 예컨대 (3a)에서 *Y*는 *Mary*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항표현이고, *X/Y*는 *sing*의 범주에 해당하는 함수표현이다. 이와는 달리 (3b)에서는 *X/Y*는 *Mary*의 범주로서 함수표현이고 *Y*는 *sing*의 범주로서 논항표현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5)



이와 같이 동일한 구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분석이 가능한 것은 (4)와 (5)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4)와 (5)의 주어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범주를 서로 달리 설정한 것은 *Mary*의 외연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Dowty, 1979).⁹⁾

이렇듯 (3)의 형성규칙은 서로 다른 범주를 결합하여 더 큰 구조를 형성하는 규칙으로서 함수자 범주와 논항범주의 결합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함수적용이란 통사적, 의미적 함수표현을 논항표현에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함수범주는 *X/Y*, *Y/X*의 형태를 갖는 경우이고, 논항 범주는 *Y*나 *X*에 해당하는 범주로서 함수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다.

9) Dowty(1979)에서는 임의의 표현 *a*의 범주 *A*를 *A/B*로 상승하는 것을 유형상승(type raising)이라고 한다.

이렇듯 범주문법은 통사적 관계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의미적 기술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사건구조 의미론이다. 사건구조 의미론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태를 중심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은 사건의 논항으로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사적 요소 등은 사건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개념어와 서술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함수-논항 관계로 기술하는 문법체계이다. 따라서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을 통합한다면 두 문법체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과 의미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범주 문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사건구조 의미론은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사건구조 의미론에 의하여 자연언어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지만, 사건구조 의미론은 통사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표현의 구조적 특성을 밝히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범주문법이다.

2. 사건구조 의미론

사건구조 의미론은 Davisdon(1967)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논리적 의미론(logical semantics)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몇 개의 아원자 사건(subatomic event)으로 해체 분석함으로써 보다 명시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술어 논리적 의미기술에 있어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이들 동사가 취하는 매개논항(adicity)¹⁰⁾ 수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 (6) a. Mary walks.
 b. Walk(m)
 c. $\exists e[\text{Walk}(e, \text{mary})]$

10) 매개논항(adicity)이란 서술어가 취하는 논항의 수이며, monadic(1항), dyadic(2항), triadic(3항) 등에서 유래하였다.

예컨대 (6a)의 *walk*의 의미는 (6b)에서 보는 것처럼 개체 *Mary*가 갖는 속성 (property)을 나타내는 1항술어(1-place predicate)로 간주한데 반해서, 사건구조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6c)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walk*의 의미를 사건 *e*와 개체 *Mary*와의 관계(relation)로 간주함으로써 2항술어(2-place predicate)로 기술하였다. 또한 술어 논리적 기술에 있어서는 술부부사(predicate adverbs)와 문장부사(sentential adverbs)를 명제 표현의 부가적 요소로 간주하였으나, 아원자 의미론에서는 이들 부사는 사건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하고, 부사적 표현을 독립적 명제적 표현으로 다루고 있다(Kearns, 2000).

(7) a. *Mary walks slowly.*

b. $\text{Walk}(j) \wedge p$

(8) A: *Mary walks slowly.*

B: I believe it was slow,

where It means *Mary's walking.*

(7b)에서 보는 것처럼 *slowly*와 같은 부사를 명제적 표현으로 간주한 것은 (8A)의 의미 가운데 *Mary walks*와 같은 사건을 (8B)에서 보는 것처럼 *it*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부사어를 사건과 관련된 서술어로 간주함으로써 부사를 수반하는 문장은 부사를 수반하지 않는 문장을 함의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9) a. *Mary walks slowly.*

b. $\text{Walk}(m) \wedge p$

c. $\exists e(\text{Walk}(m, e) \ \& \ \text{Slow}(e))$

따라서 (9a)의 의미는 (9c)와 같은 사건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구조 의미는 보다 더 구체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휘를 해체 분석한 이른바 아원자(subatomic) 명제로 나타낼 수도 있다.

- (10) a. Mary walks slowly.
 b. $\exists e(\text{Walk}(m, e) \ \& \ \text{Slow}(e))$
 c. $\exists e(\text{Walk}(e) \ \& \ \text{Subject}(m, e) \ \& \ \text{Slow}(e))$

(10b)와 (10c)는 (10a)의 의미 표시이지만, (10c)는 (10b)의 원자(atomic)명제 $\exists e\text{Walk}(m, e)$ 를 두 개의 아원자 명제로 나누어 쓸 수 있다. 즉 $\text{Walk}(m) = \exists e(\text{Walk}(e) \ \& \ \text{Subject}(m, e))$ 가 성립한다.

이렇듯 하나의 명제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를 아원자 의미구조로 기술함으로써, 부사를 수반하는 문장은 부사를 수반하지 않는 문장을 함의하고 있음을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 (11) a. Mary walks slowly.
 b. Mary walks.

- (12) a. $[\text{Slowly}(\text{Walk})](m)$
 b. $\text{Walk}(m)$

- (13) $\text{SLOWLY WALK}(m) \Rightarrow \text{WALK}(m)$

(11a)는 (11b)를 함의하고 있으나, 의미의 형식적 기술에 있어서는 이러한 함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즉 (11)의 술어 논리적 의미표시인 (12a)는 (12b)를 함의하는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13)의 형식적 기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text{SLOWLY WALK}(j)$ 가 $\text{WALK}(j)$ 를 함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원자 명제를 아원자 명제로 해체한다면 이러한 함의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Kearns, 2000).

- (14) a. $\exists e(\text{Walk}(e) \ \& \ \text{Subject}(m, e) \ \& \ \text{Slowly}(e))$
 b. $\exists e(\text{Walk}(e) \ \& \ \text{Subject}(m, e))$

(14a)는 술어 논리적 기술에 의한 (11a)의 사건구조를 두 개의 아원자 명제로 분석한 것이고, (14b)는 (11b)의 원자 명제를 아원자 명제로 기술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자 명제를 아원자 명제로 해체 분석한 (14a)는 (14b)를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begin{aligned}
 (15) \quad & \exists e(\text{Walk}(e) \wedge \text{Subject}(m, e) \wedge \text{Slow}(e)) \\
 & \Rightarrow \exists e(\text{Walk}(e) \wedge \text{Subject}(m, e))
 \end{aligned}$$

(15)에서 보는 것처럼 $(p \wedge q \wedge r)$ 은 $(p \wedge q)$ 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아원자 의미론의 모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16) 문법모형

Grammatical functional Operators: Subject, Object, Adv, . . .

Θ -role Operators: Agent, Theme, Patient, . . .

Existential Operator: \exists

Event: e

State: s

Tense Operator: Culminate, Hold¹¹⁾

(16)에서 보는 것처럼 아원자 의미론은 자연언어의 어휘를 중심으로 각각의 어휘에 대한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역을 부여함으로써, 주어진 표현 내에서 어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부여한다. 특히 동사는 사건이나 상태로 나타냄으로써, 이들 사건이나 상태가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역과의 관계를 함수표현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시제 연산자 Culminate는 과거를 그리고 Hold는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11) 시제 논리의 시제 연산자 과거(Past)와 현재(Present)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자로 간주하고 있지만, 아원자 의미론의 시제 연산자는 Hold(현재)와 Culminate(과거)는 사건을 논항으로 취하는 1항술어로 간주하고 있다.

i) 철수가 걷는다. $\Rightarrow \exists e$ 걷다.(e, 철수) & Hold(e)

ii) 철수가 걸었다. $\Rightarrow \exists e$ 걷다.(e, 철수) & Cul(e)

나아가서 문장 간의 함의관계 뿐만 아니라, 어휘적 함의 관계도 아원자적 기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John killed Smith*는 *Smith died*를 함의하고 있다.¹²⁾

(17) John killed Smith. \Rightarrow Smith died.

즉 (17)은 문장 간의 함의라 한다면, (17)과 같은 경우는 어휘적 함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관계는 어휘 해체분석을 수용하고 이를 사건구조로 기술하면 보다 명료하게 함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18) a. Kill = $\exists e, e', e'' \exists x, y (\text{CAUSE}(x, e) \ \& \ \text{BECOME}(y, e') \ \& \ \text{DIE}(y, e''))$

b. $\exists e \text{Eat}(e, x, y) = \exists e, e', e'' \text{Bite}(e, x, y) \ \& \ \text{Chew}(e', x, y) \ \& \ \text{Swallow}(e'', x, y)$

(19) a. $x \text{ kill } y = \exists e \text{Kill}(e, x, y)$

b. $\exists e, e', e'' \exists x, y (\text{CAUSE}(x, e) \ \& \ \text{BECOME}(y, e') \ \& \ \text{DIE}(y, e''))$

(20) a. $y \text{ die.}$

b. $\exists e'' \exists y (\text{DIE}(y, e''))$

(21) $\exists e, e', e'' \exists x, y (\text{CAUSE}(x, e) \ \& \ \text{BECOME}(y, e') \ \& \ \text{DIE}(y, e'')) \Rightarrow (\text{DIE}(y, e''))$

(18b)는 *kill*을 해체분석(decomposition)한 사건구조이고, (20b)는 *die*의 사건구조 표시이다. (19b)에서 보는 것처럼 $x \text{ kill } y$ 의 의미는 세 개의 사건으로써 x 가 일으키는 사건(CAUSE)과 y 가 변화하는 사건(BECOME)과 y 가 죽는 사건(DIE)으로 이루어진 사건구조로 기술할 수 있다. 이들 사건들 사이에는 (21)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사 *kill*을 해체 분석하였을 때, *kill*은 *die*를 함의하고 있음을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12) 종래의 어휘해체 분석에서는 John killed Smith는 하위구조 Smith died로 해체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의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형부정사 구문의 함의 관계도 사건구조에 의하여 기술할 수 있다(Kearns, 2000:193-195).

- (22) a. John saw Linda shake the bottle.
 b. John felt the floor shake.

(22)의 지각동사 *saw*와 *felt*는 보충어로 목적어와 원형부정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21)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주어 *Linda, the floor*와 서술어 *shake*로 이루어진 명제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Kearns(2000)에 따르면 전통 논리적 기술에 따라 이러한 원형부정사구조를 명제로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밑줄 친 (21a)의 *Linda shake the bottle*이나, (21b)의 *the floor shake*는 명제적 표현이 아니라, 상위문의 주어가 지각한 현상, 즉 본 것이나 느낀 것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21)의 밑줄 친 부분은 명제가 아니라 인지되는 사건이다. 즉 원형부정사구 *Linda shake the bottle*이 명제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1a)의 지각동사와 원형부정사구가 나타내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23) a. John saw Linda shake the bottle.
 b. $\exists e \exists e'$ (SEE(e) & EXPERIENCER(j,e) & STIMULUS(e',e) & SHAKE(e') & AGENT(L,e') & PATIENT(the bottle,e'))
 c. 보는 사건 e가 있고,
 흔드는 사건 e'가 있고,
 John은 e의 경험자이고,
 e'은 e의 자극이고,
 Linda는 e'의 행위자이고,
 병은 e'의 피행위자이다.

(23b)를 다시 풀어쓰면 (23c)와 같은 의미이다. 이와 같이 사건구조를 의미역에

의하여 기술함으로써 지각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보충어가 나타내는 사건을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 (24) a. John saw Linda shake the bottle.
 b. Linda shakes the bottle.
 c. * John saw Linda.

- (25) a. $\exists e \exists e' (\text{SEE}(e) \ \& \ \text{EXPERIENCER}(j,e) \ \& \ \text{STIMULUS}(e',e) \ \& \ \text{SHAKE}(e') \ \& \ \text{AGENT}(I,e') \ \& \ \text{PATIENT}(\text{bottle},e'))$
 b. $\exists e' (\text{SHAKE}(e') \ \& \ \text{AGENT}(I,e') \ \& \ \text{PATIENT}(\text{bottle},e'))$
 c. $\exists e (\text{SEE}(e) \ \& \ \text{AGENT}(j,e) \ \& \ \text{THEME}(I,e))$

(25a)는 (24a)의 사건구조이고, (25b)는 (24b)의 사건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4a)가 (24b)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25b)의 사건구조는 (25a)의 사건구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부분 간의 함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4a)는 (24c)를 함의하지 않는다. 즉 (25a)에서 보는 것처럼 *Linda*는 행위자(Agent)이지만, (25c)의 *Linda*는 주제(Theme)가 된다. 따라서 *Linda shakes the bottle*을 명제로 간주한다면 *See*의 논항은 주어 *John*과 명제 *p*가 된다. 그러나 *See*나 *Felt*의 논항은 명제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원자 의미론은 하나의 동사를 의미적 구성성분으로 분석하고, 이들 구성성분은 서로 분리된 논항으로 간주한다면 동사들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재를 바탕으로 다음 세 장에서는 給, 跟, 在의 통사 범주와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V 給의 통사범주와 의미

하나의 어휘가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예컨대 영어의 *need*는 명사, 동사, 조동사로서 쓰일 수 있으며, 한국어의 **주다**, **떡다** 등도 동사, 조동사로서 쓰일 수 있고, 중국어의 給 역시 서로 다른 문법적 범주를 갖는 것으로 다루어 왔다. 특히 중국어의 給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給은 동사, 전치사, 그리고 연동사 또는 사슬동사(serial verb)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려고 하였다.

呂叔湘(1999)에서는 給을 개사 또는 연동사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듯 給의 통사 범주를 서로 상이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은 給의 통사적 특성과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데서 비롯된다. 본 장에서는 給의 통사적 범주 설정 및 통사적 기능을 살펴보고 給의 의미적 특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서 중국어 給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한국어 **주다**, 그리고 영어의 *give*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給의 통사범주

呂叔湘(1999)에 따르면 給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 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개사로 쓰이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다.

(1) 我 給 你 書.

I give you book

‘I give you a book.’

(2)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d you a book. / I lend a book to you.’

呂叔湘(1999)에서는 (1)의 給을 동사로 분류한 것은 행위자(agent)로서 我(I)가 수혜자(receiver)인 你(you)에게 주제(theme)인 書(book)를 건네 주는 사건(event)을 나타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1)에서 보는 것처럼 給은 주어 我와 간접목적어 你와 직접목적어 書를 논항으로 취하는 여격동사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朱德熙(1979)도 (2)의 給은 동사이며 동시에 전치사로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3) a. 我 借 書.

I lend book

'I lend a book.'

b. *我 借 給 書.

I lend give book

'I lend a book.'

(3a)에서 보는 것처럼 (3a)가 문법적인 것은 借는 명시적인 동사로서 기능을 한다. 이에 반해 (3b)가 비문법적인 것은 給은 동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給은 동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1)은 물론이고 (2)가 문법적이라는 사실은 (1)의 給은 동사로서 기능을 하는데 반해서 (2)의 給은 전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給을 전치사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給은 반드시 간접목적어와 공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給와 간접목적어가 생략되더라도 문법적 문장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즉 (3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3b)가 비문법적인 것은 바로 給你를 전치사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다.

특히 朱德熙(1979)에서 (2)의 給을 전치사로 분류한 것은 (4a)를 (4b)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給你是 동사구로부터 외치이동(extra position)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 a.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d you a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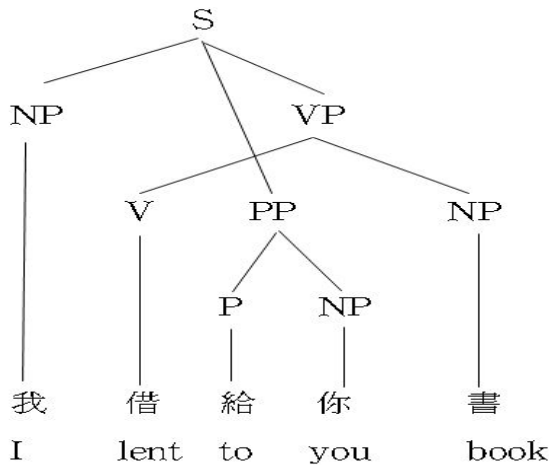
b. 我 借 書 給 你.

I lend book give you

'I lend a book to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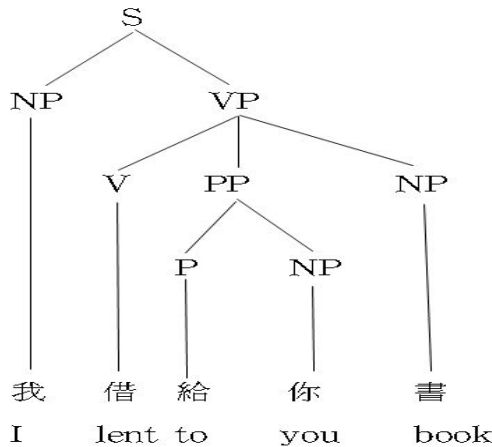
즉 (4a)를 (4b)와 같이 바꾸어 쓸 때 (4b)의 給你은 영어의 *to you*처럼 분석되며 이 경우 給은 전치사 *to*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의 통사적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 우선 (1)의 給은 동사로 분류할 수 있지만, (2)의 給을 전치사로 분류할 수 없다. (4a)의 수형도를 (5)와 같이 분석할 경우, 給你은 영어의 *to you*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給은 전치사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給你를 전치사구로 분석하더라도 給你가 의미상으로 문장부사 (sentential adverb)로서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술부부사(predicate adverb)로서 기능을 하느냐를 밝혀야 할 것이다. 給你가 문장부사로서 기능한다면 (4a)는 (5)와 같은 구조로 파악할 수 있지만, 給你가 술부부사로서 기능을 한다면 (6)과 같은 구조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6)



이렇듯 (4a)의 구조는 (5)로 분석할 수도 있고, (6)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4a)의 給你를 전치사구라고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5)와 같이 문장부사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와 (6)에서처럼 술부부사로 기능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표현이 두 가지의 통사적 기능을 가질 수는 없다. 즉 给你的 통사적 기능은 문장부사로서의 기능이나 술부부사로의 기능 중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 给你가 문장부사로서 기능을 한다면, SVO언어(영어나 중국어)가 갖는 통사적 제약을 여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부사어의 출현 위치의 제약 가운데 하나는 동사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나타나면 비문법적 문장이 유도된다.

- (7) a. * John examined carefully the problem.
- b. * I want very much John to go.
- c. * John will have amused frankly the children by the time.

(7a)의 *carefully*는 이른바 술부부사이고 (7b)의 *very much*는 정도부사구이며 (7c)의 *frankly*는 문장부사이다. 이렇듯 술부부사이든 문장부사이든 이들 부사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나타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되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사와 목적어를 분리되는 것을 금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구가 삽입되면 비문법적 문장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에서 보는 것처럼 給你를 전치사구라고 한다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구가 삽입되어 비문법적 문장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4a)가 문법적 문장이라는 것은 給你는 전치사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둘째로 給你를 이른바 문장부사(전치사구)로 간주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給你는 문장부사임으로 문장 s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4a)의 수형도는 (5)에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구 給你는 문장부사임으로 s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이른바 non-tangling condition(or no-cross branching principle)¹³⁾을 어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a)가 문법적인 것은 給你를 전치사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와는 달리 給你를 술부부사로서 기능을 한다면, (6)에서처럼 동사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합당한 구조적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다는 SVO의 제약을 어기게 된다. 따라서 給你는 술부부사로 간주할 수 없으며 이는 곧 給你가 전치사구가 아님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給你를 전치사구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는 전치사구 이동의 문제이다.

- (8) a. I saw Mary at the park.
 b. It was at the park that I saw Mary.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에서 임의의 요소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의미의 동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즉 (8a)와 (8b)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8a)를 (8b)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임의의 요소가 이동하였을 때 의미

13) A tree is a mathematical configuration, (N, Q, D, P, L) where, N is a finite set, the set of nodes, Q is a finite set, the set of labels, P is a weak partial order in $N \times N$, dominance relation, P is a strict partial order in $N \times N$, the precedence relations L is a function from N into Q , the labeling function and such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hold: 1. $(\exists x \in N)(\forall y \in N)(x,y) \in D$, single root condition, 2. $(\forall x,y \in N)((x,y) \in P \vee (y,x) \in P) \leftrightarrow ((x,y) \notin D \wedge (y,x) \notin D)$, exclusivity condition, 3. $(\forall w,x,y,x \in N)((w,y) \in P \wedge (w,y) \in D \wedge (x,z) \in D \rightarrow (y,z) \in P)$, Non-tangling condition (Wall, Robert, 1972:149).

보존의 원리(meaning-preserving principle)를 어기지 않는다면 두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4)에서 보는 것처럼 (4a)와 (4b)의 의미는 동일하다. 따라서 (4a)의 給你가 문미로 이동함으로써 (4b)와 같은 문법적 문장이 유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給你를 전치사구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No-cross branching principle과 SVO에서의 부사어 위치 제약을 어기는 문제를 설명할 방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a)와 (4b)가 문법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給你가 전치사구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9) a.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d you a book.'

b. * 給 你, 我 借 書.

give you, I lend book

'To you, I lend a book.'

給你가 전치사구라면 (9b)가 비문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즉 *at the park*는 문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해서 중국어에서 給你는 문두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바로 給你는 전치사 구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2. 조동사로서 給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給你는 전치사구 아니며 따라서 給은 당연히 전치사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給에 대한 통사범주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 중국어 등에서도 연속적으로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쓰이는 경우 [V1 + V2]의 특성은 상이할 수 있다. 전통문법에서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 즉 [V1 + V2 + , , , + Vn] 구조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하는 Vn을 본동사로 간주하고 Vn 이전의 동사를 조동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V1과 V2가 결합하여 연속적인 일련의 동작이나 상

태를 나타내는 경우 이를 사슬동사(serial verb)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V1 + V2] 구조 가운데는 개별언어에 따라 [V1 + V2] 가운데 V2를 조동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고, [V1 + V2]를 사슬동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이영현, 1996, I. Jo, 1990).

- (10) a. 먹어 보다
- b. 잡아 가다
- c. 넘겨 주다

- (11) a. 잡아 먹다
- b. 돌아 앓다
- c. 때려 죽이다

(10)은 물론이고 (11)도 [V1 + V2] 구조로 이루어졌지만, (10)의 경우 V2의 {보
다, 가다, 주다} 등은 이른바 조동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서 (11)의 V2의 {먹
다, 앓다, 죽이다} 등은 본동사로서 사슬동사를 이루는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10)의 {보
다, 가다, 주다} 등은 선행동사 V1의 사건에 대한 부차적 상황 예컨
대 [먹어 보
다]에서 보
다는 V1이 나타내는 사건의 경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즉 먹어 보
다의 의미는 먹은 경험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보
다, 가다, 주
다}는 V1이 나타내는 사건의 부가적 상황을 나타낼 뿐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구
체적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0)의 V2는 조동사로 간주하고 있다.

- (12) a. 철수는 떡을 먹어 보았다.
- b. * $\exists e(\text{먹다}(e) \ \& \ \text{주어}(\text{철수}, e) \ \& \ \text{목적어}(\text{떡}, e) \ \& \ \exists e'(\text{보
다}(e'))$

다시 말하면 먹어 보
다의 의미는 먹
다가 나타내는 사건은 존재하지만, 보
다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먹어 보
다의 의미를 먹은 경
험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보
다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은 먹
다라는 사건일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11)에서는 V1과 V2가 나타내는 사건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때려 죽이다에서 V1의 제1논항과 제2논항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V2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1논항과 제2논항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 (13) a. 철수는 해충을 잡아 죽였다.
 b. $\exists e(\text{잡다}(e) \ \& \ \text{주어}(\text{철수}, e) \ \& \ \text{목적어}(\text{해충}, e) \ \& \ \exists e' \text{죽이다}(e') \ \& \ \text{주어}(\text{철수}, e') \ \& \ \text{목적어}(\text{해충}, e')) \ \& \ (e \supseteq e')$
 c. 철수는 해충을 잡았다.

(13a)는 (13c)를 함의하고 있다. 즉 V1 잡다와 V2 죽이다는 명시적으로 각각의 논항을 갖는 경우이다. 이렇듯 동일한 [V1 + V2]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은 [V1본동사 + V2조동사]의 구조로 파악되고, (11)의 [V1 + V2]의 구조는 [V1본동사 + V2본동사]로 파악된다.

이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하나의 어휘로 표현되지만, 하나의 어휘가 두 개 이상의 사건(event)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14) a. They gave me a party.
 b. They held a party and gave a certain mental benefit to me.

(14a)의 *give*는 [+GIVE]라는 하나의 사건이나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14a)의 의미는 (14b)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며, *give*를 어휘해체 하면 [*hold* + *give*]라는 적어도 두 개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4a)의 *give*의 의미는 (14b)처럼 일차적으로 *held*의 의미와 이차적으로 *give*의 의미를 갖는 경우와 같다. 즉 *give* = [*held* + *gave*]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영어의 *give*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15) a. Mary gave John a cold.
 b. Mary gave John a broken arm.

- c. Mary gave John a black eye.
- d. Mary gave John a bath.
- e. Mary gave John a kiss.

- (16) a. *감기를 주었다.
 b. *부러진 팔을 주었다.
 c. *멍든 눈을 주었다.
 d. *목욕을 주었다.
 e. *키스를 주었다.

- | | |
|---------------------------|--------------|
| (17) a. 감기를 옮겨 주다/ 건네 주다. | (옮기다 + 주다) |
| b. 팔을 부러 뜨려 주었다. | (부러뜨리다 + 주다) |
| c.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 주었다. | (되다 + 주다) |
| d. 목욕을 시켜 주었다. | (시키다 + 주다) |
| e. 키스를 해 주었다. | (하다 + 주다) |

(15)의 *give*의 의미는 한국어에서 보는 것처럼 맥락에 따라 [건네다V1 + 주다V2], [부러뜨리다V1 + 주다V2], [만들다V1 + 주다V2], [시키다V1 + 주다V2], [하다V1 + 주다V2] 등처럼 V1의 의미와 V2의 의미로 해체 분석될 수 있다.

이렇듯 영어의 *give*는 (15)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동사 *give*로 실현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14)에서 보는 것처럼 [*held*V1 + *give*V2]로 해체 분석된다면 영어의 *give*는 맥락에 따라 다의적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결합되어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V1 + V2]가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거나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사건을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18) a. 읽어 주다
 b. 불러 주다

- c. 보내 주다
- d. 써 주다

- (19) a. 我 讀 給 你 听.
 I read give you hear
 'I read it to you.'
- b. 我 唱 給 你 听.
 I sing give you hear
 'I sing it to you.'
- c. 我 送 給 你.
 I send give you
 'I send (it) to you.'

(18)의 한국어는 물론이고 (19)의 중국어에서 [V1 + V2]는 독립적인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이들 두 동사는 각각의 논항을 취할 수 없다.

- (20) a.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b. 주다(읽다(철수, 영희, 책))
 c. 읽다(철수, 영희, 책) & *주다(철수, 영희, 책)

예컨대 한국어의 동사 **읽어 주다**는 각각의 동사 **읽다**와 **주다**가 결합된 경우이지만, (20c)에서 보는 것처럼 V1 **읽다**는 {철수, 영희, 책}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지만, 동사 **주다**는 {철수, 영희, 책}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읽어 주다**가 의미하는 것은 읽는 사건은 가능하지만, 주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개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일 때 한국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에서 V1을 본동사 그리고 V2를 조동사로 간주하고 있다.

- (21) a.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d you a book.'

b. 我借書給你.

I lend book give you

'I lend a book to you.'

周紅(2007)에서는 (21a)의 借給을 연동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서 朱德熙(1979)에서는 借給의 給을 전치사로 간주하고 있다. 즉 (21a)와 (21b)는 동일한 의미표현이지만, (21b)에서 보는 것처럼 給你是 영어의 *to you*와 의미상으로는 통사적 구조상으로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給你를 전치사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19)의 [V1 + V2]는 물론이고 (21a)의 借給의 給은 조동사로 간주한다면 (21b)의 給 역시 조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서 V2가 조동사라는 것은 영어와 비교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조동사가 이동하는 경우는 영어에서 대단히 일반적인 언어현상이다(Yang, 2012:37).

(22) a. We may desert this city under no conditions.

b. Under no conditions may we desert this city.

(23) a. I have never had to borrow money from the bank.

b. Never have I had to borrow money from the bank.

(24) a. I go fishing only on Sunday.

b. Only on Sunday do I go fishing.

(22)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2a)는 물론이고 (22b) 역시 서술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a)와 (22b)는 동일한 의미표현이지만, 조동사가 이동한 경우이다. 즉 영어의 조동사 *may, have, do* 등은 의문문이 아닌 경우라도 이동할 수 있다.

(21a)와 (21b)는 동일한 서술문이며, 동일한 의미표현임에도 불구하고 (21a)의

給는 조동사이고 (21b)의 給는 전치사로 간주하는 것은 합당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給가 조동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給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적 특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영어의 조동사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과정이나,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대한 화자나 청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 (25) a. I have seen the book.
- b. I can see the book.

(25a)의 *have*는 물론이고 (25b)의 *can* 역시 조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동사는 이른바 동사의 하위 범주로 분류한다면 마땅히 사건이나 상태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25)에서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은 본동사 *see*이고 조동사 *have*나 *can*은 사건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 (26) a. I have bought the book.
- b. $\exists e(\text{Buy}(e) \ \& \ \text{주어}(I, e) \ \& \ \text{목적어}(\text{book}, e) \ \& \ \exists e' * \text{have}(e')) \ \& \ \text{주어}(I, e') \ \& \ \text{목적어}(\text{book}, e') \ \& \ (e = e')$

(26a)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표시하면 (26b)와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26a)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건 *buy*는 한 행위자가 주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조동사 *have*는 행위자와 주제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 사건 *buy*가 발생한 시점이나 사건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동사 *have*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exists e' * \text{have}(e')$ 로 기술할 수 없다. 이렇듯 조동사 *have*나 *can*은 주어나 목적어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자(functor) 표현이 아니다. 즉 조동사는 사건과 관련된 함수자가 아니라, 사건이나 명제(proposition)를 논항으로 취하는 상위의 함수자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조동사는 본동사와 동일한 범주로 간주될 수 없다.

영어의 조동사는 물론이고 중국어의 給가 조동사로서 기능을 한다면 給가 나

타나는 위치는 동사구에 제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給의 이동

給의 범주가 무엇이나에 따라 給가 나타나는 위치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전치사구는 문미는 물론이고 문두, 그리고 문장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조동사는 전치사구보다는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¹⁴⁾

(27) a. I saw Mary at the park.

b. At the park I saw Mary.

(28) a. 我 今天 去 學校.

I today go school

'Today I go to school.'

b. 今天 我 去 學校.

Today, I go school.

'Today, I go to school.'

(29) a.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t you a book.'

b. 我 借 書 給 你.

I lend book give book

'I lent a book to you.'

c. 我 給 你 借 書.

I give you lend book

14) 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문미뿐만 아니라 문두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나더라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조동사는 문미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으며 문두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의문문에 한정된다. 이 경우 서술문과 의미문은 동일한 의미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술문과 의문문은 진리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I lent a book to you.'

d. * 給 你, 我 借 書.

to you, I lend book

'To you, I lent a book.'

(2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구 *at the park*는 문미는 물론이고 문두에도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전치사구 今天은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에서 전치사구는 문두에 위치할 수 있다면, 給你를 전치사구로 간주할 경우에는 (29d)가 문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給你가 문두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은 給你是 전치사구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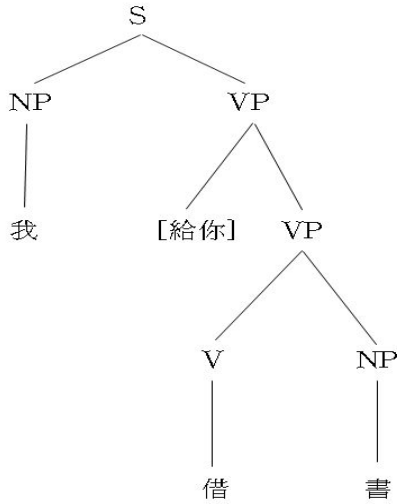
給你是 전치사구가 아니라 조동사라는 사실로부터 給你的 성분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給을 전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給 + 你]는 의미상 영어의 전치사구 [*to you*]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조상으로도 서술어의 영역밖에 위치하기 때문이라고 간주하였다.

(30) a. [s我 [給你] [predicate[vp借書]vp]predic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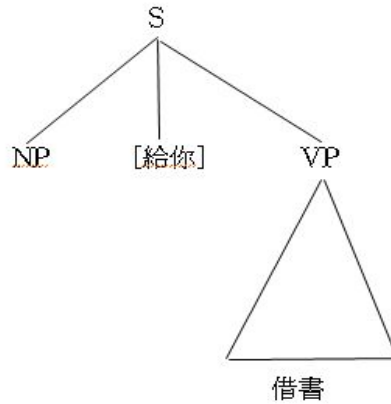
b. [s我 [predicate[給你] [vp借書]vp]predicate]s

(30a)에서 보는 것처럼 [給你]는 술부(predicate) 밖의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30b)에서처럼 [給你]가 술부 속에 들어있다면 이는 술부의 요소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31) a.



b.



(31a)의 수형도는 [給你]가 동사구의 지배(dominate)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문장 s의 지배를 받는 경우이고 (31b)에서는 [給你]가 동사구 VP의 지배를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31a)의 [給你]를 전치사구로 간주한다면, [給你]는 문두에도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미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給你]가 문두에 나타나거나 문미에 나타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유도된다.

- (32) a. * 給 你 我 借 書.
 give you I lend book
 'I lend you a book.'
- b. * 借 書 我 給 你.
 lend book I give you
 'I lend you a book.'

(32)의 두 문장이 비문법적인 것은 給你가 전치사구가 아님을 말해 준다. 그에 반해 給你를 동사구의 한 요소로 간주한다면 (33)의 문법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33) a. 我 給 你 借 書.
 I give you lend book
 'I lend you a book.'
- b.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d you a book.'

(33)의 두 문장이 문법적인 것은 給你를 동사구로 간주할 때 (28b)의 수형도에 서처럼 給你가 [借書]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借給你書]처럼 동사 [借]와 목적어 [書] 사이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듯 給你는 전치사구가 아니라 동사구의 구성요소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31a)에서처럼 給你가 VP 앞에 나타날 수 있으냐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給을 조동사로 간주한다면, 조동사의 의미적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4) a. 哲洙 今天 去 學校.
 Cheol today go school
 'Choel went to school today.'

- b. [哲洙] subject 今天 [去學校了] predicate
- c. *[哲洙] subject [去今天學校了] preicate
- d. *[哲洙] subject [去學校了今天] predicate

중국어에서 전치사구를 포함한 모든 부사구는 술부(predicate) 앞에 위치할 수 있으나, 주어 앞은 물론이고 술어 뒤나 술부에 나타날 수 없다. 즉 (34b)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34c), (34d)가 비문법적인 것은 부사어 오늘이 주어 앞이나, 술부 속 또는 술부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어에서는 부사어의 출현이 대단히 자유스럽다.

- (35) a. Today John met Mary.
- b. John today met Mary.
- c. John met Mary today.
- d. *John met today Mary.

즉 영어에서는 부사어 *today*가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문장의 어디에라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영어와는 달리 중국어의 今天的 통사적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어에서는 문장의 영역을 주부와 술부로 2분적 분석만을 전제로 한다. 바꾸어 말하면 $S \rightarrow NP VP$ 구조로 분석한다. 이러한 2분적 분석에서 VP의 영역 이외의 요소는 NP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 (36) a.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t you a book.'
- b. 我 [借 書] 給 你.
 I [lend book] give you
 'I lent a book to you.'
- c. 我 給 你 [借 書].

I give you [lend book]

'I lent a book to you.'

(36)에서 給你가 나타나는 위치는 서로 상이하다. 즉 (36a)에서 給你是 동사구 속에 나타나고, (36b)에서는 동사구 뒤에 나타난다. 그리고 (36c)에서는 동사구 왼쪽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관심사는 전치사구로 간주하였던 給你가 동사구 속에 나타날 수 있는지는 것이다. (36a)에서도 給你是 동사구 [VP V借給你 O書]VP 속에 나타날 수도 있고, (36b)에서 보는 것처럼 給你是 VP의 영역밖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듯 給你가 주어의 앞쪽 즉 문두에 나타날 수는 없지만, VP의 속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VP의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給你是 전치사구 아니면서도 문장의 지배를 받는 요소, 즉 INFL¹⁵⁾의 범주에 속하는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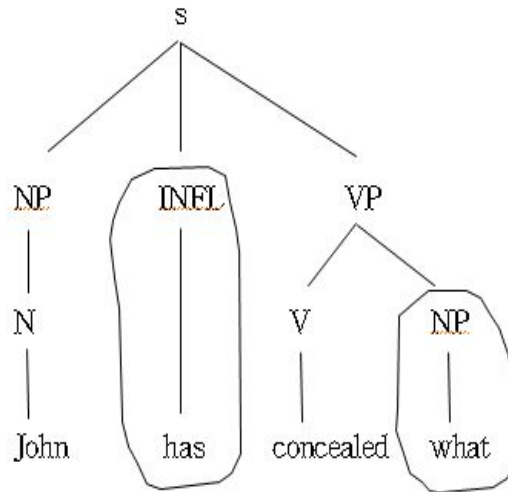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동사구에 대한 전통적인 분석은 조동사를 포함한 동사적 요소를 동사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Chomsky(1981)에서는 전통적인 동사구 가운데 조동사적 요소를 INFL(inflexion)범주로 설정함으로써 동사구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Chomsky의 표준이론이후 Jackendoff(1972), Stowell(1981), Radford(1988) 등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X-bar theory가 도입되면서 문장의 구조를 S → NP VP 구조로 간주하던 것을 S → NP INFL VP로 확대함으로써 조동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給你를 INFL의 요소로 간주한다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给你的 통사적 범주의 문제는 물론이고 給你가 나타나는 통사적 특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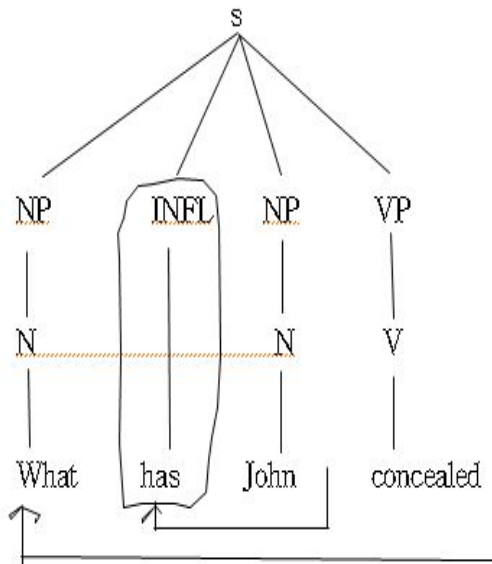
- (37) a. John has concealed what.
 b. What has John concealed?

15) INFL(inflexion)은 시제(tense)와 수의 일치(agreement), 그리고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를 자질로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INFL을 보다 간단히 I로 기술하기도 한다.

(38) a.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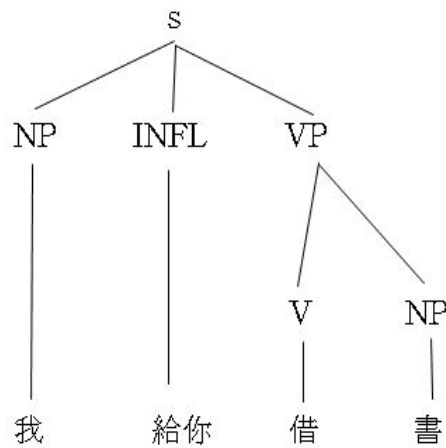
중국어의 給你가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영어의 조동사 이동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7a)는 (37b)의 기저구조이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각각 (37)은 (38)과 같고, (38b)는 (38a)에 Wh-Movement와 Subject-Aux Inversion이 적용된 기저구조이다. (38a)의 원형으로 표시된 INFL과 의문사 *What*

이 (38b)에서 보는 것처럼 일차적으로 *What* 요소가 문두로 이동하고, 다음에는 INFL이 주어 앞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렇듯 INFL은 문장의 지배를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어 *John*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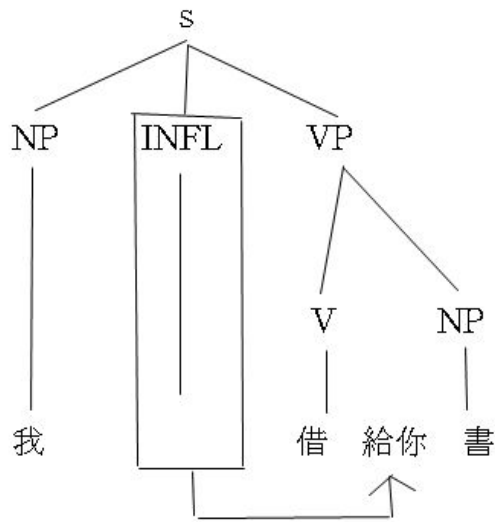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給你가 동사구 앞이나 동사구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給你是 INFL 요소임을 말해준다.

- (39) a. 我 給 你 [借 書].
 I give you lend book
 'I lent you a book.'
- b.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t a book to you.'
- c. 我 [借 書] 給 你.
 I [lend book] give you
 'I lent a book to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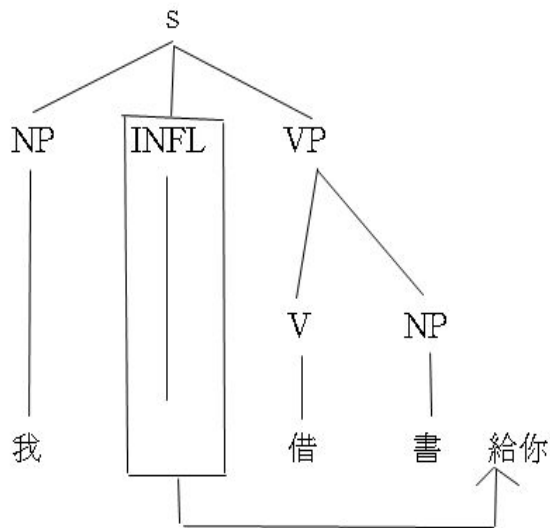
(40) a.



b.



c.



(40a) - (40c)는 각각 (39a) - (39c)의 수형도이다. (39a)의 給你是 이른바 INFL 요소로서 각각의 기저구조라 할 수 있다. (40b)는 (40a)의 INFL이 동사구 속으로 이동한 경우이고, (40c)는 INFL이 동사구 뒤로 이동한 경우이다. 이렇듯 중국어의 給你是 동사구와 관련된 INFL은 주어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으나 동사

구 영역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에 給你를 동사적 요소가 아니라 부사적 요소 즉 전치사구라고 한다면 앞에서 보아 온 것처럼 문두, 즉 주어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예문 (31)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부사적 요소와는 통사적으로 완전히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給의 의미 기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중국어 給는 영어의 전치사 *to*와 의미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전치사구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給는 한국어의 조동사 주다와 의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한국어의 본동사 주다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렇듯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특이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給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給와 공기하는 동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영어의 *give*는 중국어의 給나 한국어의 주다와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즉 영어의 *give*는 한국어의 [V1 + 주다]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중국어의 [V1 + 給]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주다와 중국어의 給는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 | |
|--------------------------------|-----------|
| (41) a. Mary gave John a cold. | (give) |
| b. 메리는 존에게 감기를 건네 주다. | (V1 + 주다) |
| c. 瑪麗 把感冒 傳染 給了 約翰. | (V1 + 給) |
| Mary cold infect gave John | |
| 'Mary infect cold to John.' | |

(41)에서 보는 것처럼 영어의 *give*는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중국어나 한국어가 갖는 [V1 + V2]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영어에서는 하나의 동사 V1 *give*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한국어는 두 개의

동사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갖는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 (42) a. 철수는 순희에게 아리랑을 불러 주었다.
 b. 철수는 순희에게 소설을 읽어 주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보내 주었다.

- (43) a. ?철수는 아리랑 불러 주었다.
 b. ?철수는 소설을 읽어 주었다.
 c. ?철수는 책을 보내 주었다.

- (44) a.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t a book to you.'
 b. 我 給 你 借 書.
 I give you lend book
 'I lent you a book.'
 c. 我 借 書 給 你.
 I lend book give you
 'I lent a book to you.'

- (45) a. *我 借 給 書.
 I lend give book
 b.* 我 給 借 書.
 I give lend book
 c.* 我 借 書 給.
 I lend book g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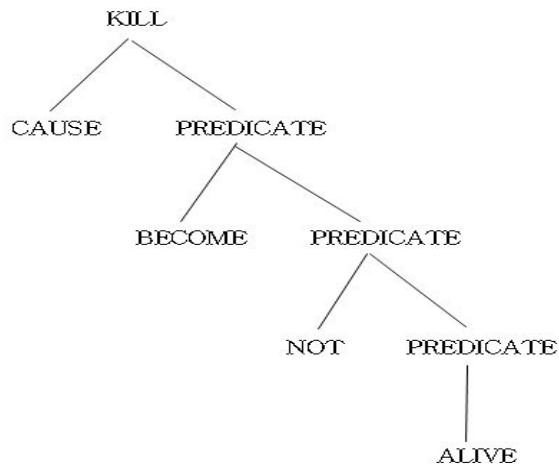
(42)에서 보는 것처럼 {불러 주다, 읽어 주다, 보내 주다} 등은 반드시 간접목적

어를 수반해야 한다. 그런데 반해서 (43)이 비문법적인 것은 간접목적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 있어서도 給는 반드시 간접목적어를 수반해야 한다. 즉 (44)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45)가 비문법적인 것은 給의 간접목적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어와 중국어는 [V1 + 주다] 구조를 갖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접목적어와 공기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이렇듯 중국어의 給는 일차적으로는 전치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쓰일 수 있으며 선행하는 동사와 공기할 때에는 INFL 요소로서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종래의 조동사의 기능과 의미는 동사구의 하위범주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給는 조동사로서 INFL의 역할을 하지만 영어의 상조동사(aspectual auxiliary)나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y)와는 약간의 차이점을 갖는다. 즉 給는 영어의 *can, may, will* 등과 같은 INFL의 역할과 동일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給는 통사적으로 영어의 조동사처럼 동사구 안이나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면서도 의미상으로는 給가 취하는 논항의 성질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給의 통사구조는 [V1 + V2]구조를 갖는 이른바 사슬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거나, 영어의 동사를 해체 분석하였을 때 나타나는 매립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Lakoff(1968), Postal(1970) 등에 따르면 *kill*과 같은 동사를 어휘해체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매립적 요소를 갖는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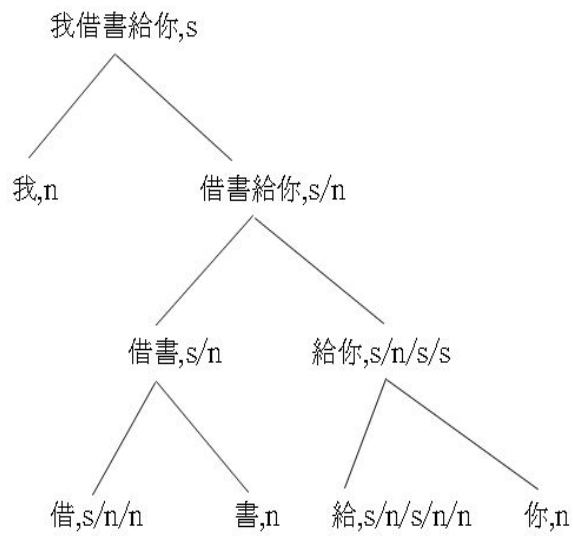
즉 동사 *kill*은 *cause, become, not alive*를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cause, become, not alive*가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영어 *kill*의 논항은 명제적 표현 $x \text{ causes } y, x \text{ becomes } y, y \text{ is not alive}$ 라는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한국어와 중국어에 있어서는 각각의 표면의 명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영어의 *sing*은 [V1 + V2]로 해체될 수 있는데 반해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V1 + V2]가 표면에 실현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 (47) a. Mary sings me Arirang.
 b. Mary sings Arirang and gives a mental benefit to me.
 c. Sing = [sing ... + giv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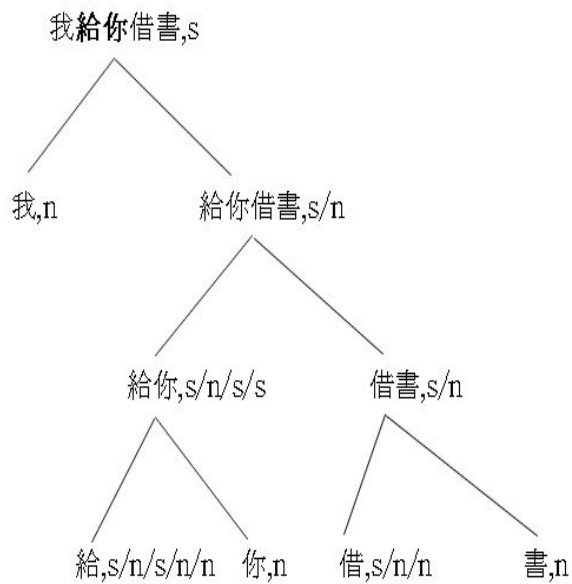
(47a)의 *sing*은 [노래하다] + [주다]로 해체되는데 반해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唱] + [給]로 실현된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唱] + [給]의 어순이 대단히 자유스럽다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48) a. 我 借 書 給 你.
 I lend book give you
 'I lent a book to you.'
 b. 我 給 你 借 書.
 I give you lend book
 'I give you a book.'
 c. 我 借 給 你 書.
 I lend give you book
 'I lent you a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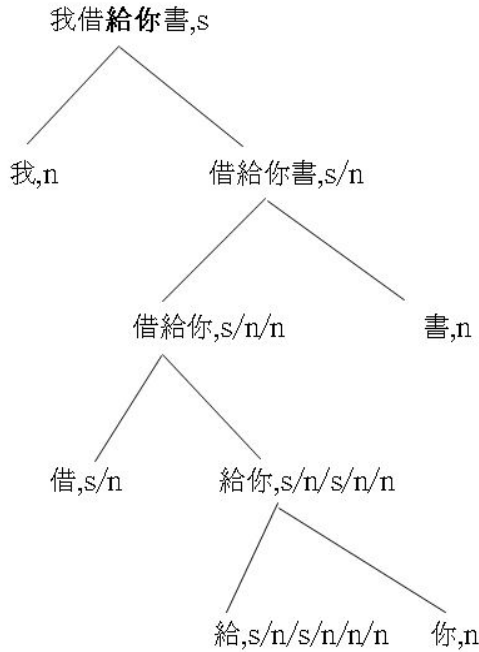
(49) a.



b.



c.



중국어의 V1과 V2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給의 의미적 기능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48)에서 給你가 나타나는 위치는 서로 상이하지만, (48)의 수식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낸다면 給의 범주는 모두 s/n/s/n/n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49c)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給는 你를 논항으로 취하는 새로운 함수표현이 유도되고 다시 借를 논항으로 취하는 새로운 함수 표현이 된다. 그리고 (49b)에서 給는 你를 논항으로 취하여 새로운 함수표현 s/n/s/n이 유도되고 s/n/s/n은 다시 借書라는 s/n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표현이 유도된다. 그리고 (49a)에서 보는 것처럼 給는 일차적으로 你와 결합하고 다시 借書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유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給는 모두 동사구와 결합하여 새로운 동사구를 유도하는 함수자 범주라는 점이다. 이렇듯 給는 한국어에서 보는 것처럼 [불러 주다], [잡아 주다]처럼 선행하는 동사의 양상(modality)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가 갖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給가 갖는 의미를 사건구조에 의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50) $\exists E(\text{給}(E) \ \& \ \text{Subject}(\text{我}, E) \ \& \ \exists e(\text{借}(e) \ \& \ \text{IO}(\text{你}, e) \ \& \ \text{DO}(\text{書}, e) \ \& \ e \in E)$

여기에서 給가 나타내는 사건은 본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예컨대, {읽다, 부르다, 보내다} 등과 같은 각각의 사건의 집합을 나타낸다. 즉 [읽다 \in 給]와 같은 관계로서 $\{e', e'', e'''\} \subseteq E$ 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給의 범주를 s/n/s/n/n과 같은 함수자 범주로 간주하며 給가 동사 (s/n) 등을 논항으로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중국어의 給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給를 전치사로 간주한다면 給를 포함한 요소는 부사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給를 수반하는 요소를 부사구라고 한다면 부사구가 갖는 문법적 기능도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給를 수반하는 요소는 문장부사로 간주한다면 No-cross branching condition을 여기게 되고 이를 술부부사로 간주한다면 SVO 구성구조제약을 여기게 된다. 이는 바로 給가 잔치사구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V1 + V2] 구조를 갖는 借給와 같은 경우 학자에 따라 연동사 또는 전치사구로 간주하고 있으나 중국어의 [V1 + V2]는 이른바 영어나 한국어의 사של 동사가 아니라 한국어의 {주다, 보다, 가다} 등과 같은 이른바 한국어의 조동사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특히 한국어의 {주다, 보다, 가다}와 중국어의 給는 선행동사의 보조동사 역할을 하면서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영어의 *give*는 맥락에 따라 한국어나 중국어의 [V1 + V2]구조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중국어의 給는 의미적으로 조동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어의 給는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양상조동사와 같은 의미적 기능을 한다. 즉 영어나 한국어의 조동사는 이동영역에 제한이 있으나 중국어의 給는 비교적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양상조동사로서 INFL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給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 예컨대 [+GIVE]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읽어 주다], [불러 주다], [넘겨 주다] 등처럼 구체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집합(set of events)으로서 양상조동사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V. 跟의 범주설정과 의미

중국어 跟은 다양한 통사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통사적 범주 설정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의미 기술에 있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합당한 형식적 기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跟은 통사적으로 많은 제약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사, 개사, 접속사, 연동사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범주에 따른 의미 역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呂叔湘(1999)에 따르면 跟은 통사적으로 동사, 개사, 접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朱德熙(1979)에서는 跟은 독립적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기하는 어휘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이를 연동사, 또는 개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跟은 문법적 기능으로 보아 대동사로 분류함으로써 동사, 개사, 접사의 기능을 모두 용이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跟의 통사적 범주

동사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은 이들이 취하는 논항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며, 타동사는 내부논항¹⁶⁾과 외부논항¹⁷⁾을 갖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즉 논항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跟은 타동사라고 할 수 있다. 呂叔湘(1999)에서 跟을 동사 외에도 개사 또는 접사로 분류한 것은 跟은 언제나 2항술어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접사의 경우는 물론이고 개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두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 구조이다. 특히 전치사는 내심적 구조¹⁸⁾에서는 하나의 논항이 필요하지만 전치사가 문법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논항이 필요하다.

(1) a. 我 跟 着 你.

I follow being you

16) 통사적으로는 목적어나 보어라고 할 수 있다.

17) 통사적으로는 주어에 해당한다.

18) 전치사도 2항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전치사는 후행하는 요소와 선행하는 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I am following you.'

b. 我 跟 你 去.

I follow you go

'I go with you.'

c. 我 去.

I go

'I go.'

(1a)의 跟은 주어 我와 목적어 你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라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1b)의 본동사는 去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跟은 선행명사구 我와 후행 명사구 你를 접속하는 이른바 접속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1b)에서 跟你는 부가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으며 跟你가 생략되더라도 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된다. 즉(1c)가 문법적이라는 사실은 跟你를 전치사구로 볼 수 있게 만든다. 따라서 跟은 개사 또는 전치사라는 것이다. 이렇듯 跟은 (1a)에서는 동사로 간주할 수 있고, (1b)에서는 개사 또는 전치사로도 간주할 수 있다.

跟을 다양한 범주로 분류하더라도 跟의 의미는 동일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跟의 의미는 [+Follow]를 나타내지만, 池愛平(2011)에 따르면 跟은 두 논항 사이에는 선후관계가 성립해야 하고 두 요소 사이에는 선행하는 사건과 후행하는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1a)에서는 跟은 목적어 你를 주어 我가 따라가는 경우이며, 이 경우 你와 我 사이에 선후행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朱德熙(1979)에서는 跟을 개사 또는 접속사로 분류하고 있다. 跟을 전치사로 간주한 것은 跟이 반드시 명사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a. 把 你的 想法 跟 大家 談一下.

about your thinking to everyone talk

'please talk your thinking to everyone.'

b. 把 你的 想法 談一下.

about your thinking talk

‘please talk your thinking.’

(2)의 구조는 명령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는 你이며 이 경우 주어 你是 생략된 경우이다. 그리고 把你的想法는 談一下(talk)의 목적어이고, 跟大家(to you)는 부가적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생략이 가능하다. (2a)는 물론이고 (2b)가 문법적인 것은 부사적 요소 跟大家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跟大家에서 跟은 大家를 논항으로 취하는 전치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반해서 동일한 구조를 갖는 경우이지만, [跟 + NP] 구조의 跟을 접속사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a. 這本書 你跟誰 借的?
 this book you from who lend
 ‘Who did you lend this book form?’

b. * 這本書 借的?
 This book lend

(2a)와 통사구조와 (3a)의 통사구조는 동일하다. 즉 (2a)의 구조는 [NP(你把你的想法) + 跟大家 + VP(談一下)]로 분석할 수 있으며, (3a)의 구조는 [NP(這本書) + 跟誰 + VP(借的)]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2a)와 (3a)는 동일한 통사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a. NP(object) + (你)跟大家 + VP
 b. NP(object) + (你)跟誰 + VP

즉 (2a)의 구조는 (4a)로 나타낼 수 있으며, (3a)의 구조는 (4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2a)와 (3a)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2a)에서는 이른바 전치사구 跟大家를 생략할 수 있지만, (3a)에서 跟誰를 생략하면 비문법적 문장이 된다. 즉 (3b)가 비문법적인 것은 跟誰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跟 + NP] 구조 가운데 (4a)의 跟은 전치사로 분류하고

(4b)의 跟은 접속사로 분류한 것은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朱德熙(1979)에 따르면 (4a)의 跟大家는 전치사구임으로 跟은 전치사라는 것이고 (4b)의 跟은 你와 誰를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跟大家는 *to you*로 해석되는데 반해서 跟誰는 *from whom*로 해석되며 이 경우 주어인 你와 誰 접속된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 즉 跟은 선행하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를 수반해야 하며 (4b)에서 誰(*whom*)는 선행하는 요소이고 你는 후행하는 요소로서 의미상 책을 빌리는 사건에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誰로부터 책을 빌리는 사람 你는 빌리는 행위의 후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4a)의 跟은 전치사이고 (4b)의 跟은 접속사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어 跟의 통사적 범주는 동사, 전치사, 접속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의미에 있어서도 전치사, 접속사로서 의미는 동사의 의미와 상이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跟에 대한 서로 상이한 범주설정과 의미에 대한 논의에는 보다 명시적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대동사로서 跟

跟의 범주를 다양한 범주로 분류한 것은 跟이 나타나는 구조상의 차이나 의미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우선 跟을 동사로 분류한 것은 跟은 단순한 두 개의 명사구를 수반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 두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 (5) a. 你 走 快 了, 老太太 跟 不 上.
 you run fast Tens, old woman follow not up
 'If you ran fast, then the old woman could not follow you up.'
- b. 我 跟 着 你.
 I follow being you
 'I am following you.'

(5a)의 跟은 {따르다, 따라가다}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2항술어(타동사)로

간주하였다. 즉 (5a)에서 跟은 주어 我와 목적어 你라는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2항술어인데 반해서 (5b)에는 명사구인 老太太는 주어이고 명시적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5b)의 跟은 1항술어로서 이른바 자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跟은 (5a)에서 보는 것처럼 타동사로 간주할 수도 있고 (5b)에서처럼 자동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跟이 목적어를 수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2항술어로 해석된다. 즉 (5a)의 의미는 동사 跟은 선행하는 주어 我와 후행하는 목적어 你的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반해 (5b)에는 명시적인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으로는 선행하는 사람은 상위문의 주어 你라고 할 수 있으며 후행하는 사람은 하위문의 주어 老太太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5a)의 跟은 타동사로 간주하고 (5b)의 跟은 자동사로 분류하면서도 의미상으로는 (5a)와 같이 타동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5b)의 跟은 통사적으로는 1항술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2항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 跟에 대한 통사적 범주 설정에 따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跟이 동사로서 [+follow]의 의미를 갖는 동사인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우선 跟을 동사로 분류하면서도 (5a)에서는 타동사로 분류하고 (5b)에서는 자동사로 분류한 근거는 통사적으로 명시적 목적어의 존재 유무에 근거한 분류였다. 이렇듯 구조적 특성에 따른 범주 설정의 문제를 보다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5a)와 (5b)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a)의 의미는 선행하는 문장 你走快了로부터 후행하는 문장에 나타나는 跟의 의미가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선행하는 문장은 후행하는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

(6) a. 陳叔叔 在 前邊 走, 小華 在 后邊 跟着.

uncle Chen be front walk, So-Huh be back follow.

‘Uncle Chen walks at the front So-huh follows him at the back.’

b. 陳叔叔 在 前邊 跑, 小華 在 后邊 跟着.

uncle Chen be front run, So-Huh be back follow.

‘Uncle Chen runs at front So-huh follows him at back.’

c. 陳叔叔 在 前邊 唱, 小華 在 后邊 跟着.

uncle Chen be front sing, So-Huh be back follow.

‘Uncle Chen sings at front So-huh sings at back.’

d. 陳叔叔 在 前邊 跳, 小華 在 后邊 跟着.

uncle Chen be front jump, So-Huh be back follow.

‘Uncle Chen jumps at front So-huh jumps at back.’

e. 陳叔叔 走, 小華 跟着.

uncle Chen walk, so-hua follow.

‘Uncle Chen walks, so-hua follows him.’

(6)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跟의 의미는 선행하는 문장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6a)의 의미는 선행하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 즉 [+WALK]이 존재하는 경우, 후행하는 문장의 사건을 나타내는 요소가 跟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6b)에서는 선행하는 사건은 [+RUN]이고 후행하는 문장의 跟이 나타내는 의미 역시 [+RUN]이다. 또한 (6c)에서도 선행하는 사건은 [+SING]이고 후행하는 문장의 跟이 나타내는 의미 역시 [+SING]이다.

이와 같이 跟은 선행하는 문장의 사건을 대신하여 나타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영어의 대동사 *do*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a. 陳叔叔 在 前邊 走, 小華 在 后邊 走.

uncle Chen be front walk, So-Huh be back walk.

‘Uncle Chen walks at front, So-huh follows him at back.’

b. 陳叔叔 在 前邊 跑, 小華 在 后邊 跑.

uncle Chen be front run, So-Huh be back run.

‘Uncle Chen runs at front, So-huh follows him at back.’

c. 陳叔叔 在 前邊 唱, 小華 在 后邊 唱.

uncle Chen be front sing, So-Huh be back sing.

‘Uncle Chen sings at front, So-huh sings at back.’

- d. 陳叔叔 在 前邊 跳, 小華 在 后邊 跳.
uncle Chen be front jump, So-Huh be back jump.

‘Uncle Chen jumps at front, So-huh jumps at back.’

- e. 陳叔叔 走, 小華 走.
uncle Chen walk, so-hua walk.

‘Uncle Chen walks, so-hua follows him.’

(7)의 각각의 문장은 (6)의 각각의 문장에서 跟 대신에 선행하는 동사로 바꾸어 쓴 것이다. 즉 (7)의 각각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나 (6)의 각각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跟은 走로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어의 跟은 [+FOLLOW]의 의미가 아니라 선행하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반복하는 경우이다.

(8) A. John met Mary at the park.

B. Jack did, too.

(8)에서 보는 것처럼 (8B)의 *did*는 선행하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 [+MEET]를 나타낸다. 즉 (8B)의 *did*는 대동사(pro-verb)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중국어의 跟은 대동사임을 알 수 있다.

跟이 대동사라고 한다면 대동사의 선행사라고 할 수 있는 동사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5a)와는 달리 (5b)에는 선행하는 선행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跟을 대동사라고 하는 데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b)가 문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跟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9) a. 老太太 跟 不上.

old woman follow not up. = (NP + V + ∅)

‘The old man could not follow (someone) up.’

- b. 我 跟 着 你.
I follow up you.
'I follow you up.'

(9a)는 물론이고 (9b) 역시 선행하는 문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9a)에는 동사 跟의 명시적인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9b)에는 명시적 목적어 *you*가 존재함에도 跟이 나타내는 의미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문장이 나타내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들 문장이 완전한 명제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전제된 요소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10) a. 你 走 快了.
You walk quickly.
'You quickly walk.'
- b. 你 說 快了.
You speak quickly.
'You quickly speak.'
- c. 你 跳 快了.
You jump quickly.
'You quickly jump.'

즉 (9a)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10a) - (10c)와 같은 매립적 의미 즉 노인이 따라 갈수 없는 상황은 (10)처럼 你走快了, 아니면 {你說快了, 你跳快了} 등등의 사건을 전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b)가 명시적인 명제¹⁹⁾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0)과 같은 전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전제될 수 있는 사건이 표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

19) 명제(proposition)는 일반적으로 문장에 의하여 나타내지만, 명제와 문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하나의 명제는 서로 다른 문장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의 문장의 서로 다른 몇 개의 명제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제는 진리치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문장 가운데는 진리치를 갖지 못하는 문장도 있을 수 있다.

더라도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통사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창고규약이다. Cooper(1983)에서는 불투명동사(opaque verb) *seek*와 같은 동사는 논항이 양화명사구인 경우 투명해석(de-re reading)과 불투명해석(de-dicto reading)을 갖는다는 것이다.

(11) John seeks a unic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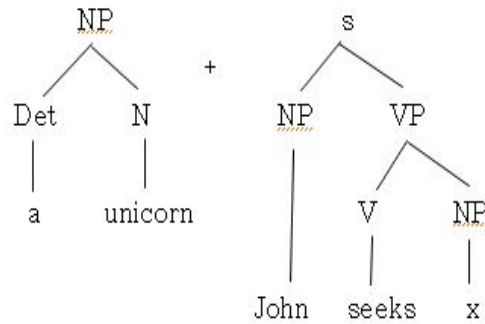
(12) a. Seek(john, $\exists x[\text{Unicorn}(x)]$)

b. $\exists x[\text{Unicorn}(x)]$ & Seek(john,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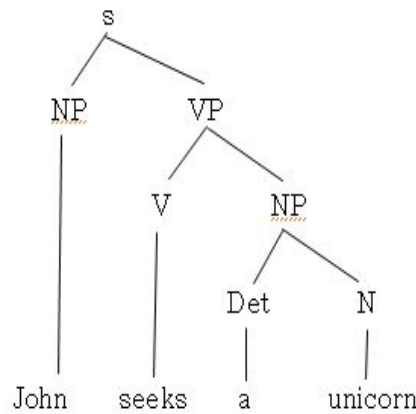
(11)의 의미는 투명해석(de-re reading)과 불투명해석(de-dicto reading)을 갖는다는 것이다. (11)이 갖는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12)와 같다. (12a)의 의미 표시는 *John*이 *seek*하는 대상인 *unicorn*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exists x[\text{Unicorn}(x)]$ 가 공집합인 경우라 할지라도 (12a)는 참일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12b)의 경우는 $\exists x[\text{Unicorn}(x)]$ 가 참일 때에만 전체 명제는 참이 되는 경우이므로 실제로 *unicorn*이 존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적 중의성을 기술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창고규약(storage convention)²⁰⁾이다.

20) Cooper(1983)에서 제안한 창고규약은 양화명사구가 갖는 중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화사를 분리해 두었다가(store) 양화사가 삽입될 빈자리에 삽입함으로써 수식영역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기술하는 방안이다.

(13) a.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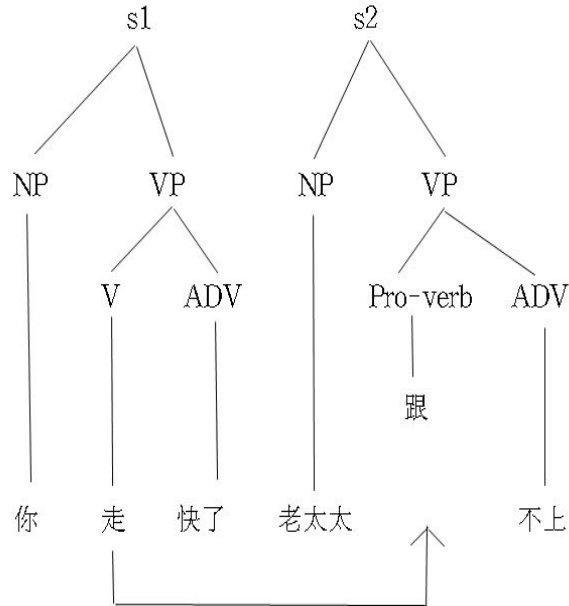


이러한 창고 규약에 따르면 수형도 (13a)에서 보는 것처럼 변항을 포함하고 있는 *John seeks x*의 *x* 자리에 창고에 간직해 두었던 명사구 *a unicorn*을 양화사 삽입(quantify insertion)함으로써 (12b)와 같은 결과문을 유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창고에 명사구 *a unicorn*을 저장해 두었다 필요한 경우에 이를 꺼내어 쓸 수 있는 장치이다. 이렇듯 (11)이 나타내는 중의적 의미 가운데 (12b)의 의미는 (13b)와 같은 수형도에 의하여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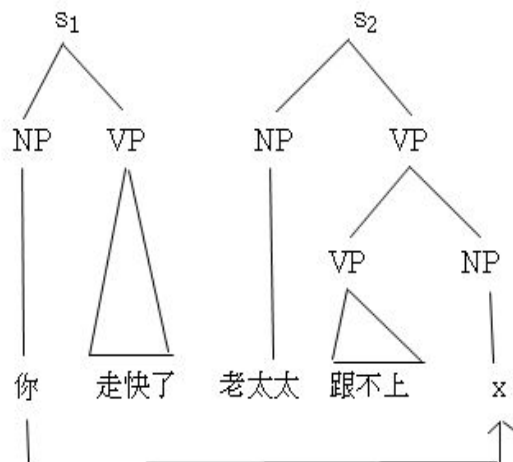
이러한 창고규약은 양화명사구의 투명 해석과 불투명 해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동사가 목적어를 결여하고 있는 (9)에서 제기된 跟의 범주와 의미해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4) a. 你 走 快了, 老太太 跟 不 上.
 you run fast if, old woman follow not up
 'If you ran fast, then the old woman could not follow you up.'

b.



c.



우선 跟이 대동사²¹⁾라는 사실은 (14b)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하는 문장의 동사가 후행문의 跟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문의 동사가 후행문의 跟과 동일한 의미의 동일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어가 부재하는 경우의 해석에 있어서도 (14c)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위문 s2의 목적어는 공범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s1의 NP를 양화사 삽입 규칙에 의하여 목적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s2의 의미는 老太太跟不上你的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듯 동사구 跟不上은 자동사이지만, 의미상으로는 跟不上你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상위문의 명사구를 하위문의 공범주에 양화사가 삽입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참고규약을 (14a)에 도입하면 跟은 타동사이고 (5a)의 跟을 자동사로 분류하였던 범주 설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고규약 외에도 통사적으로도 (5b)의 跟이 타동사라는 것은 종속절의 你是 상위절의 목적어 NP의 흔적 x 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문법적 현상은 통사론에의 공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²²⁾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跟은 (5a)에서 자동사로 간주하였으나 의미상으로는 통사적으로 공범주 원리에 의하여 타동사로 기술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듯 다양한 범주 설정과 의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跟에 대한 통일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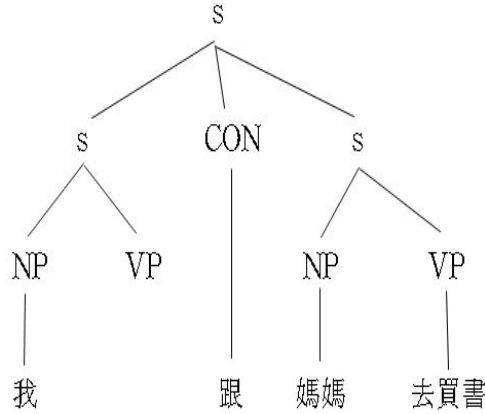
跟은 명시적 타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와 (9a)에서처럼 자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미상으로 타동사라는 것은 앞의 참고규약에 의하여 분명해졌다. 그러나 跟이 타동사라는 것은 문장 구조상의 논의일 뿐 문법 기능의 입장에서는 대동사 속에는 목적어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이다.

21) 중국어에서는 대명사·대형용사·대부사·대동사의 개념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들을 아울러 대사(代詞)라고 부르고 있다(조희무 외, 2008).

22) Haegeman(1991:404)에서 제시한 공범주원리에 따르면 흔적을 인허하는 조건은 의미역지배와 선행사지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서 전자는 핵(head)이 보어를 지배하고 그 의미역을 부여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선행사가 흔적을 지배하고 동일지표로 묶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7b)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NI는 x 를 선행지배하는 경우로서 이는 의미상으로 참고규약과 동일한 현상이다.

- (15) a. 我 跟 媽媽 去 買 書.
 I follow mother go buy book.
 'I go to buy the book with mother.'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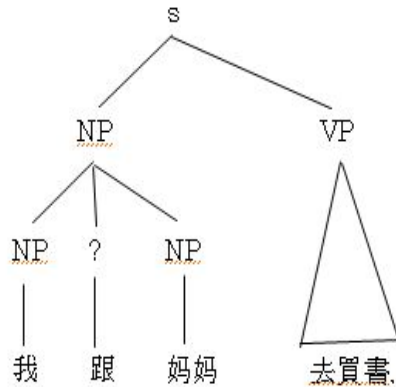
(15a)의 수형도 (15b)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跟은 동사구를 대신하는 이른바 대동사구(pro-verb phrase)이며, 跟에는 동사 去買와 목적어 書가 들어있는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2) 跟의 접속사적 특성

중국어의 跟을 접속사로 간주한 것은 두 개의 명사구를 접속한다는 점 때문이며 다음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16) a. 我 跟 媽媽 去 買 書.
 I follow mother go buy book.
 'I go to buy the book with mother.'

b.



즉 (16a)의 구조를 (16b)와 같은 수형도로 나타내는 경우, 종래의 주장에 따르면 ?로 표시한 跟의 범주는 연사(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呂叔湘(1979)에서 이 跟을 연사라고 규정한 것은 (16b)의 수형도와 같은 분석에 따른 것이다. 즉 跟은 두 개의 NP 我和 媽媽를 결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접속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6a)의 跟을 접속사라고 한다면 접속사로 연결된 표현은 접속사 생략 규칙(conjunction reduction)에 의하여 유도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17) a. John and Mary went to the school.

b. John went to the school, and Mary went to the school.

(18) a. 철수는 노래하고 춤춘다.

b. 철수는 노래한다, 그리고 철수는 춤춘다.

(17)의 명사구 *John and Mary*는 물론이고 (18)의 동사구 **노래하고 춤춘다**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나 동사구의 접속은 각각의 (17b)와 (18b)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두 문장을 기저구조로 하여 (17a)와 같은 명사구나 (18a)와 같은 동사구의 접속이 유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접속사에 의하여 결합된 명사구는 두 개의 명사구의 결합이 아니라 기저구조에는 두 개의 독립적 문장으로부터 유도된 표

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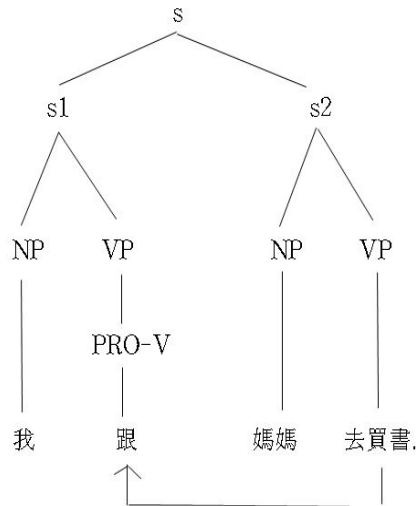
跟이 접속사라고 한다면 (16a)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 (19) a. 我 跟 媽媽 去 買 書.
 I follow mother go buy book.
 'I go to buy the book with mother.'
- b. * 我去買書, 并且媽媽去買書.
 c. * 媽媽去買書, 并且我去買書.

(19)에서 보는 것처럼 (19a)는 (19b)나 (19c)와 같은 기저구조로부터 유도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b)와 (19c)가 비문법적인 것은 跟이 접속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 보편적 현상에 비추어 중국어의 跟이 접속사라면 (19a)는 (19b)나 (19c)와 동일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다.

비록 (19b)와 (19c)가 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19a)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19a)가 (19b)나 (19c)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9a)의 수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



(20)에서 보는 것처럼 跟의 범주는 PRO-V로 선행하는 동사구는 去買書이다. 즉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跟은 두 개의 명사구 我와 명사구 媽媽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媽媽去買書라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나타내고, 我跟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我去買書라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跟은 분명히 去買라는 사건과 관련된 요소이면서도 두 사건의 선후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跟은 접속사가 아니라 동사구를 대신하는 이른바 대동사구이다. 그러나 영어의 접속사 생략(conjunction reduction)과 중국어 跟이 나타내는 접속 의미는 상이하다.

(21) a. 我 跟 媽媽 去 買 書.

I follow mother go buy book.

'I go to buy the book with mother.'

b. * 我去買書和媽媽去買書.

c. 如果 媽媽 去 買 書, 那么 我 去 買 書.

if mom go buy book, then I go buy book

'If mom will go to buy the book, then I will go to buy the book.'

영어의 접속사 생략은 (13)에서 보는 것처럼 (17a)의 접속사 *and*는 *John*과 *Mary*의 접속이 아니라 (17b)에서처럼 두 개의 문장의 접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呂叔湘(1979)이 跟을 접속사로 간주한 것은 영어의 접속사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21a)는 (21b)로부터 유도된 결과가 아니라 (21c)와 같은 기저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a. 你走快了, 老太太跟不上.

b. If you walk fast, then the old man could not follow.

(23) a. $p \rightarrow \sim q$

b. $\sim q \vee p$

(22a)의 의미를 (22b)와 같이 바꾸어 써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듯 (22a)와 (22b)를 논리식으로 쓰면 각각 (23a)와 (23b)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22a)에는 명시적인 *if - then*의 논리적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상 (23a)와 같은 조건논리식이 성립한다.

跟이 조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예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24) a. 陳叔叔 在 前邊 走, 小華 在 后邊 走.
 uncle Chen be front walk, So-Huh be back walk.
 ‘Uncle Chen walks at front, So-huh follows him at back.’
- b. $p \rightarrow q$

(24a)의 의미를 (24b)와 같은 논리식으로 써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跟은 접속사로 *if - then*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跟은 연동사적 특성

跟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跟...一樣’과 같이 제2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어 비교나 의인화²³⁾를 나타낸다. 통사적으로 跟이 제2의 서술어와 함께 쓰인다는 점에서 朱德熙(1982)에서는 跟을 연동사²⁴⁾로 간주하고 있다.

- (25) a. 我 跟 媽媽的 想法 一樣.
 I and mom’s thinking same
 ‘My way of thinking is same as mom’s.’
- b. 我 跟 媽媽 去 買 書.
 I and mom go buy book
 ‘I and mom go to buy a book.’

23) 여기서 말하는 비교나 의인화는 (i)에서처럼 跟은 태양을 의인화한 경우이다.

(i) 太陽跟母親一樣給了我們溫暖.(태양은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따뜻함을 준다.)

24) 연동사란 두 개의 동사 즉 跟과 一樣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 c. 你 走 快了, 老太太 跟 不 上.
 you walk fast old woman follow not up
 'If you run fast, the old woman can't follow you.'

앞의 논의를 통해서 跟은 단순한 명사구를 접속하거나 문장의 접속이 아니라 대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듯 跟은 (25)의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5a)와 (25b)에서는 [NP + 跟 + NP + V]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5c)의 跟 역시 [NP + 跟 + V]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跟과 V가 쌍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跟과 V를 두 동사의 연결체로 간주하여 연동사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연동사는 원래 Sebba(1987)에서 논의한 사슬동사(serial verb)로 간주할 수 있다.

- (26) a. 광부들이 동굴을 파 먹어 들어 갔다.
 b. 철수는 돼지를 잡아 먹었다.
 c. 경찰이 철수를 잡아 갔다.

- (27) a. Go get the paper.
 b. Come fly with me.

(26a)에서 보는 것처럼 파 먹어 들어 가다는 [파다 + 먹다 + 들다 + 가다]의 연속적인 동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26b)의 잡아 먹다 역시 [잡다 + 먹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6a)는 물론이고 (26b)의 잡아 먹다가 각각 두 개의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돼지를 잡아 먹는 행위는 돼지를 일차적으로 잡는 행위와 이차적으로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연속적인 하나의 행위이다. 이영현(1996)에 따르면 잡아 먹다는 두 동사가 결합된 복합동사 잡고 먹다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서 잡아 먹다는 돼지를 죽이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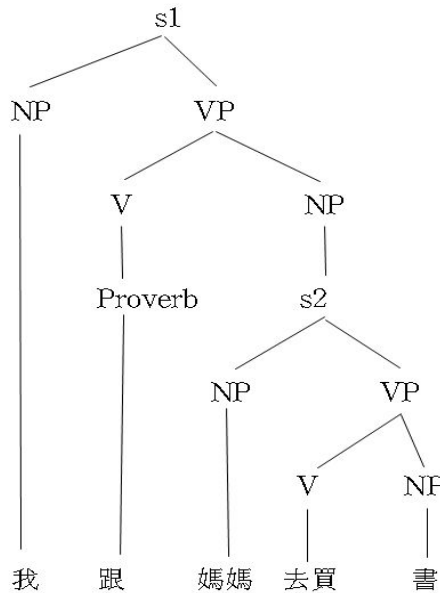
그러나 (25a)의 跟...一樣의 구조는 영어나 한국어의 사슬동사와도 다르고 중국

어 여타의 연동사와도 다르다. 예컨대 (25b)에서 보는 것처럼 去買처럼 명시적인 두 동사 去와 買가 명시적 논항을 갖는 경우 去買를 연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25a)의 跟...一樣은 물론이고 (25b) 跟...去는 연동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두 개의 독립적 동사구가 갖는 의미는 앞에서 보았던 대동사와 본동사 사이에는 구조상 상하의 관계가 성립한다.

- (28) a. 我 跟 媽媽 去 買 書.
 I and mom go buy book
 'I and mom go to buy a book.'
- b. 跟(我, 去買(媽媽,書))

(28b)는 (28a)의 논리적 구조이다. 跟은 상위문의 서술어이고 논항은 我와 하위문 去買(媽媽,書)를 논항으로 취하는 구조이다.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



(29)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상위문 s1은 NP 我와 VP [跟 + s2]로 분석할 수 있으며, s2는 NP 媽媽와 VP 去買書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跟은 상위문의 동사이지만, 대동사로서 하위문을 내부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張正(2013)에서는 跟은 하위문의 동사 去買와 연동사를 이룬다는 논의는 跟에 대한 적절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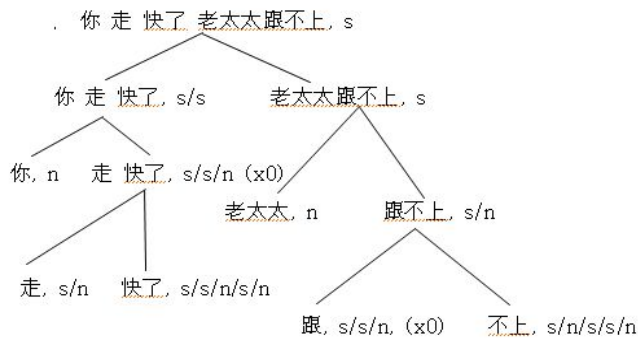
2. 跟의 의미표시

지금까지 跟에 대한 논의는 통사적으로 명시적인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사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跟이 취하는 논항과 관계없이 타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또한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대동사로서 선행하는 동사의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며 구조에 있어서는 상위문의 서술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跟은 전치사, 연동사, 접속사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며 의미상으로는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의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통사 의미적 특성을 범주 문법적 관계와 사건구조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면 跟에 대한 형식적 의미 기술이 가능해 질 것이다. 우선 자동사 구문으로 간주하였던 跟의 통사 의미적 관계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30) a. 你 走 快了, 老太太 跟 不 上.
 you walk fast old woman follow not up
 'If you run fast, the old woman can't follow you.'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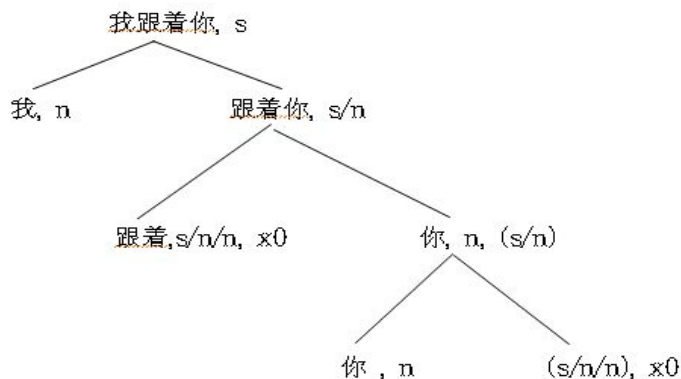
(30)의 분석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문 你走快了는 주문 老太太跟不上을 논항으로 취하는 요소로서 이른바 부사어나, 조건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老太太跟不上을 논항으로 취하여 전체 문장은 s라는 범주를 갖는다. 그리고 走快了, s/s/n은 명사구를 결여한 부사적 기능을 하는 요소 즉 s/s/n의 범주를 갖는다. 이 경우 走快了의 범주를 s/s/n(x0)로 나타낸 것은 다음에 대동사와 결속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跟의 범주 s/s/n과 동일한 범주를 갖는다. 그리고 跟과 결속되어야 할 요소가 快了임을 말해준다. 이렇듯 (30a)의 의미는 [당신이 빨리 가면], [할머니는 빨리 가는 것을 따라 가지 못한다]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不上의 범주는 s/n/s/s/n으로서 논항 표현은 跟, s/s/n이 된다. 이 경우 跟은 走快了로 대치할 수 있으며, 不上의 논항은 跟이며, 跟은 바로 走快了를 대신한 표현이 된다.

(30)의 분석을 요약하면 선행문은 후행문의 조건절과 같은 기능으로서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자 표현이며, 선행문의 走快了는 창고규약의 창고 속에 들어있는 요소로서 후행문 속에 대치될 요소이다. 그리고 跟不上은 동사 跟과 동사구 不上이 결합된 연동사가 아니라 대동사 跟은 走快了의 의미를 나타내고 不上이 다시 동사 跟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跟이 목적어와 공기하는 경우 跟과 선행동사와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다.

(31) a. 我 跟着 你.
 'I follow you.'

b.



(31a)의 跟着은 목적어 你가 나타나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跟着이 대동사라고 한다면 선행하는 동사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1)에는 전제되거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어 你는 주어로서 내포된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32) a. 我 跟着 你 吃.

I follow you eat

'I eat with you.'

b. 我 跟着 你 玩.

I follow you play

'I play with you.'

c. 我 跟着 你 去.

I follow you go

'I go with you.'

d. 我 跟着 你 讀.

I follow you read

'I read it with you.'

(32)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我跟着你 다음에는 명시적 사건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맥락에 의하여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이들 동사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32a)의 你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어 你가 관계하고 있는 사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두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다.

(33) a. 我 跟着 你 讀.

I follow you read

'I read it with you.'

b. 我 跟着 你.

I follow you

‘I follow you up.’

즉 (33a)와 (33b)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30a)처럼 跟이 통사적으로 목적어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31a)처럼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33a)처럼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출현하는 경우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35)와 같이 형식화 할 수 있다.

(34) a. 你 走 快了, 老太太 跟 不 上.

you walk fast old woman follow not up

‘If you run fast, the old woman can’t follow you.’

b. 我 跟着 你.

I follow you

‘I follow you up.’

c. 我 跟着 你 去.

I follow you go

‘I go with you.’

(35) a. $\exists E(\text{跟}(E) \ \& \ \exists e(\text{走}(e) \ \& \ \text{快}(e) \ \& \ \text{Subject}(\text{你}, e)) \rightarrow$

$\exists e'(\text{走}(e') \ \& \ \text{Subject}(\text{老太太}, e) \ \& \ \text{不上}(e') \ \& \ \{e, e'\} \subseteq E)$

b. $\exists E(\text{跟}(E) \ \& \ \exists e(X(e) \ \& \ \text{Subject}(\text{你}, e) \ \& \ \text{Object}(\text{你}, e) \ \& \ \exists e'(X(e) \ \& \ \text{Subject}(\text{你}, e') \ \& \ e=e'))))$

c. $\exists E(\text{跟}(E) \ \& \ \exists e(\text{DO}(e) \ \& \ \text{Subject}(\text{你}, e) \ \& \ \text{Object}(\text{你}, e) \ \& \ \exists e'(\text{去}(e) \ \& \ \text{Subject}(\text{你}, e') \ \& \ e=e'))))$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중국어 跟의 통사 의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어 跟은 전치사, 연동사, 접속사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跟의 통사적 관계만을 고려한 분류일 뿐 문법적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동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기술할 수 있다. 둘째, 跟 다음에 목적어가 명사구의 존재 여부에 따라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분류하였으나, 跟 자체가 자동사나 타동사

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행동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셋째, 跟은 단순한 등위접속사로 간주하였으나 명제간의 조건을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접속사로서의 기능은 없음을 밝혔다. 넷째, 跟은 후행하는 서술어와 함께 쓰이어 연동사로서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잘못임을 논의하였다. 跟과 공기하는 서술어는 跟의 목적어이며 동시에 서술어의 주어이거나 잠재적 주어의 술어일 뿐이므로 이른바 사슬동사와는 성질이 다른 요소임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명시적인 선행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맥락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맥락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동사구는 창고규약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跟은 대동사임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 跟이 단순문의 1항술어 또는 2항술어로 간주하였으나 跟은 항상 2항술어 즉 타동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사건구조 의미론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VI 在의 범주와 의미

중국어 在가 나타나는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다. 예 (1), (2), (3),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이한 구조에 따라 의미적 특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在에 대한 범주 설정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范繼淹(1982), 張國憲(2009)에 따르면 在를 동사, 연동사, 그리고 전치사로 구분하고 있다.

(1) 我 在 家.

I be home

'I am at home.'

(2) 我 在 看 書.

I be read book

'I am reading a book.'

(3) 我 在 家 看 書.

I be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4) 我 在 水壺 燒 水.

I be kettle boil water

'I boil water in a kettle.'

在가 나타나는 경우는 첫째 [在 + N]과 같은 구조, 둘째 [在 + V + N], 셋째 [在 + N + V + N] 구조로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3)과 (4)는 동일한 구조이면서 그 의미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른 在의 범주는 첫째 동사, 둘째 연동사, 셋째 전치사로 대별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인 在에 대한 품사 분류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표현 在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범주를 설정하고 의미적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은 언어 기술의 단순성을 결여한 것이고 이는 형식화에 어려움이 되는 접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在는 在의 문법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통사 범주와 의미적 관계를 논의하려고 한다.

1. 在의 동사적 특성

(1)과 같은 [在 + N] 구조를 갖는 경우 명시적으로 在의 기능을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어가 갖는 특징 가운데는 영어의 *be* 동사나 계사 (copular)와 같은 요소 是가 쓰이는 경우와 是가 생략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중국어 在의 특성이 분명해 질 수 있다. 영어에서도 *be* 동사는 문맥에 따라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5) 我 在 家.

I at home

'I am at home.'

(5)의 在가 동사냐는 것은 통사적 관점에서 동사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사로 간주하는 데는 문제점이 노출된다. Ross(1973)에 따르면 명시적인 문장의 의미를 갖는 표현 가운데 동사가 반드시 생략되어야 할 경우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6) a. We elected [Bill the president].

b. * We elected [Bill to be the president].

(7) a. We painted [the house blue].

b. *We painted [the house to be blue].

- (8) a. John hammered [the can flat].
 b. John hammered [the can to be flat].

괄괄호 속의 표현은 명시적인 문장이며 명사구 다음에 오는 밑줄 친 요소는 서술어로서 기능을 한다. 문장의 형식 가운데는 동사의 존재가 선택적일 수 있으며, 동사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문장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나아가서 중국어가 갖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be* 동사가 서술어에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9) a. John is tall.
 b. John is at home.

- (10) a. 철수는 학생이다.
 b. 철수는 욱심쟁이.

- (11) a. 約翰 很 高.
 John very tall
 'John is very tall.'
 b. 約翰 在 家.
 John being home
 'John is at home.'

영어에서는 (9)의 *tall*이나 *at home*은 형식적으로는 술어(predicator)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는 술어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다, 이다}와 같은 계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10b)에서처럼 계사가 없어도 문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해서 중국어에서는 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서술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뿐만 아니라 在家와 같은 전치사구가 의미상으로도 형식적으로 술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어의 在는 동사로서 기능보다는 전치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의 在家를 전치사구로 간주

한다면 명시적인 동사구가 있는 경우의 설명이 용이하다.

(12) a. 我 在 家.

I being home

'I am at home.'

b. 我 在 家 看 書.

I being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12a)와 (12b)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동사구나 전치사구냐의 문제를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법 기술의 단순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예문 (12a)의 在를 동사로 간주한 것은 (12a)의 구조를 [주어 + 동사 + 보어]의 구조로 간주하고, 在의 의미는 영어의 *be*나 *exist*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예컨대 (12a)의 在家를 동사라고 하고 (12b)에서는 在家 다음에 看書라는 동사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在家를 전치사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표현에 서로 다른 범주를 부여하는 하는 것은 올바른 문법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즉 在家를 전치사구로 규정하더라도 동일한 의미로 기술할 수 있다면 의미적 관점에서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

2. 전치사구로서 在家

하나의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즉 (12a)의 在家와 (12b)의 在家가 동일한 의미라는 것은 (12b)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13) a. 我 在 家 看 書.

I being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b. 我 在 家, 并且 我 看 書.

I being home, and I read book
 'I am at home, and I am reading a book.'

통사적 범주 설정의 근거는 의미적 특성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풀어쓰기를 통해서 동일명사구 생략(Eq-NP Deletion) 변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3a)의 의미는 (13b)와 동일한 의미이다. 이 경우 (13b)에는 看書의 주어 我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13a)의 在家와 (13b)의 在家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2)의 在家와 (12b)의 在家는 동일한 범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13a)의 在家와 看書를 각각 독립된 두 개의 동사구로 간주한다면 在家와 看書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즉 在家와 看書가 독립된 동사구라면 두 동사구 사이에는 중문의 관계이거나 상위문과 하위문의 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에 두 개의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두 개의 동사구가 병립하는 것은 언어의 일반적 특성과는 다른 것이다.

셋째, 두 동사구가 병립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동사구라면 접속사 생략(conjunction reduction)에 의하여 유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3a)의 구조는 (13b)와 같은 접속사 생략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 아니다(최성훈, 서월아, 2016).

- (14) a. 영희는 이 길을 오갔다.
 b. 영희는 이 길을 오고 갔다.
- (15) a. 영희는 창문을 여닫다.
 b. 영희는 창문을 열고 닫았다.
- (16) a. *영희는 창문을 닫갔다.
 b. 영희는 창문을 닫고 갔다.

(14a)와 (14b)는 물론이고 (15a)와 (15b)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서로 다른 문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14b)에 접속사 생략변형이 적용되면 (14a)와 같은 문장이 유도된다. 또한 (15a) 역시 (15b)에 접속사 생략변형이 적용된 경우이다. 이렇듯 두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 생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6a)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러한 이렇듯 두 동사 사이에 접속변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접속사 생략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동사 **오다**와 **가다**는 통사적으로 자동사일 뿐만 아니라, 이들 동사는 동일한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성만 다를 뿐이다. 또한 (16)에서도 두 동사 **열다**와 **닫다**는 타동사이며 의미적 자질도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그러나 (16a)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제1동사 **먹다**와 제2동사 **가다**는 통사적으로도 서로 다른 범주의 동사이다. 즉 전자는 타동사이고 후자는 자동사이다. 뿐만 아니라 의미적 자질도 서로 상이하다. 즉 전자는 필수논항을 요구하는 동사인데 반해서 후자는 외부논항만을 요구하는 동사이다. 따라서 두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 생략변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在**와 **看**은 서로 다른 통사적 범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적 자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13a)는 (13b)로부터 접속사 생략변형에 의하여 유도된 구조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12a)의 **在家**와 (12b)의 **在家**를 각각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한 것은 문법적 기능과 형태적 특성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리고 (12c)의 **在看**을 형태적 특성에 따라 두 동사가 결합된 이른바 연동사로 분류한 것은 형태적 기준에 의한 분류일 뿐 두 동사 사이의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a)의 **在家**와 (12b)의 **在家**에 대한 범주 설정과 의미적 동일성을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12a)와 (12b)의 **在家**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전치사구로 간주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2a)의 **在**는 동사 그리고 (12b)의 **在**는 전치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12a)와 (12b)의 **在**를 동일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 (17) a. 他 在 家 學習.
 he be home study
 ‘He studies at home.’

- b. 他 在 家 里 學 習.
 he be home in study
 'He studies at home.'

(17a)와 (17b)는 동일한 의미로 간주할 수 있으며, (17b)에서 보는 것처럼 在가 장소부사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명시적 장소의 의미를 갖는 里와 함께 쓰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6b)의 在 家里가 전치사구인 것은 물론이고 (12a)의 在家 역시 전치사구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사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 (18) a. 他 在 家 (里) 學 習.
 he be home in study
 'He studies at home.'
- b. 他 在 家 (里), 并且 他 學 習.
 he be home in and he study
 'He studies at home.'

- (19) a. He studies at home.
 b. He is at home and he studies.

(17a)와 (17b)의 의미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18a)와 (18b)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19a)와 (19b)의 의미는 동일하다. 이 경우 중국어와 영어의 구조를 비교해 보면 (18)과 (19)는 동일하다. 즉 (19a)는 (19b)의 접속사 생략 (conjunction reduction)과 동일명사구 생략(EQ-NP-Deletion)이 적용되어 유도된 문장이다. 마찬가지로 (18)의 두 문장에서도 동일한 변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어의 在가 전치사로서 부사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영어의 전치사구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3a)의 在家의 在는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이 在를 전치사로 간주한다면 (13a)는 물론이고 (13b)의 在家도 전치사로 간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란의 문제는 在의 범주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통사적 범주와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데서 야기된 것이다(최성훈, 서월아, 2016).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20) a.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b. John put the book on the table.

- (21) a. There is a book.
 b. * John put the book.

(20)에는 동일한 전치사구 *on the table*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전치사구라고 하더라도 (20a)의 *on the table*은 생략 가능한데 반해서 (20b)의 *on the table*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즉 (21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21b)는 비문법적이다.

(21)의 두 문장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으로 보아 *on the table*을 전치사구로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바꾸어 말하면 (20a)의 *on the table*은 이른바 부가어(adjunct)로서 기능을 하는데 반해서 (20b)의 *on the table*은 보충어(complement)로서 기능을 한다. Arrts(2013:73)는 전치사구도 주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22) a. After Saturday would be a good time to go away for a few days.
 b. Between eleven and midnight suits me alright.

(22a)의 전치사구 *after Saturday*는 물론이고 (22b)의 *between eleven and midnight*는 모두 전치사구이다. 그럼에도 이들 두 전치사구는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사적 범주와 문법적 기능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즉 주어는 명사구이어야 한다는 대응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치사구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3a)의 在家와 (13b)의 在家는 통사적으로는 전치사구이지만, 이들의 문법적 기능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3. 상조동사로서 在

연동사구란 하나의 주어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한 가지 동작의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王還, 1980).

(23) a. 我 在 看 書.

I being read book

'I am reading a book.'

b. 我 在 家 看 書.

I being home read book

'I read a book at home.'

(23a)의 在看과 在家看을 연동사로 다루고 있는 것은 동사 在와 물론이고 在家는 看書하는 방법 목적이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3)의 在看과 在家看을 연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즉 연동사는 통사적으로 V1과 V2가 연이어 쓰이면서 의미상으로는 V2가 핵심적 사건을 나타내고 V1은 V2의 보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24) a. 他 去 買 書.

he go buy book

'He went out to buy a book.'

b. 他 去 看 電影.

he go watch movie

'He went out to watch a movie.'

(24)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주어가 두 개 이상의 동사를 수반하여 이들 두

동사 가운데 하나는 다른 동사의 동작의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23a)에서 제1동사 去는 제2동사 買가 나타내는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낸다. (23)의 去買, 去看 등을 연동사라고 할 수 있으나, 在看과 去買는 서로 문법적 기능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즉 (24a)의 去買는 연동사라고 할 수 있고, (23)의 在看은 연동사가 아니라 제2동사가 나타내는 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어의 연동사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去買와 在看과 같은 서로 상이한 문법구조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어의 去買와 같은 연동사는 사슬동사(serial verb)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25) a. Go get the paper.
 b. Come fly with me.

Sebba(1987:86-87)에 의하면 사슬동사는, 첫째 (25)에서 보는 것처럼 두 동사 *go get*의 주어는 이른바 “*understood you*”로서 *you* 하나뿐이다. 둘째로 *go get*은 *go and get*이나 *go and then get*과는 서로 다른 구조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go*와 *get*사이에는 어떠한 접속사도 개재해 있는 경우가 아니다. 셋째, (25)의 두 동사들 예컨대 *go get*은 두 개의 독립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부정의 수식 범위는 이들 동사 전체에 해당한다. 다섯째, 영어에서는 제1동사와 제2동사의 경우 대부분 현재 시제에만 국한된다. (25)의 *go get*은 Sebba(1987)가 제시한 이상의 정의에 합당한 이른바 사슬동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영현(2005)에서는 사슬동사는 일련의 두 동사가 어떤 등위 표지나 종속 표지 없이 한 문장 속에 나타나는 구조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에도 *go get*은 사슬동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어의 去買가 사슬동사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오직 두 개의 동사가 병치되는 경우 즉 [V1 + V2]의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 (26) 我去 買 書.
 I go buy book

'I go out to buy a book.'

즉 (26)의 我去買書에서 去는 동사 去買와 함께 쓰이어 去買書는 사슬동사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V1 + V2]가 연이어 쓰이는 경우는 다음에서 V1과 V2 사이에 원인이나 결과 등 두 동사는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27) a. 他去 買 書.
 he go buy bok
 'He goes out to buy a book.'

b. 他 來 吃 飯.
 he come eat meal
 'He comes to have a meal.'

(28) a. 他去.
 he go
 'He goes.'

b. 他 買 書.
 he buy book
 'He buys a book.'

(29) a. 他 來.
 he come
 'He comes.'

b. 他 吃 飯.
 he eat meal
 'He has a meal.'

(27a)에서 보는 것처럼 去는 買를 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27b)에

서도 來는 吃飯을 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사슬동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7a)의 去買는 물론이고, (27b)의 來吃는 각각 두 개의 동사라는 것은 (28)은 물론이고 (29)와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어의 연동사로 간주하였던 在看書와 같은 경우는 연동사가 아니라 상(aspect, 相)조동사와 본동사가 결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상이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시작이나 과정 또는 끝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또는 사건이 완료되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경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상이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시간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말한다. Vendler (1967)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상적 특성에 따라 상태(state)동사, 행위(activities)동사, 완수(accomplishment)동사, 성취(achievement)동사로 하위분류하고 있다(Kearns, 2000).

| | | | |
|------------|------------|-----------------|--------------|
| (30) state | activities | accomplishments | achievements |
| know | run | paint a picture | recognize |
| believe | walk | make a chair | spot |

(30)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가 나타내는 상은 동사 자체가 나타내는 특성일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 사건이 나타내는 모습일 수도 있다. 예컨대 동사 *run*은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run 1 mile*와 같은 경우에는 완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상을 나타내는 형식은 언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영어에서는 이른바 진행상과 완료상과 같은 문법적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중국어의 在看과 같은 경우는 看(書)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는 在의 역할이다. 예컨대 영어의 [*be + reading*]의 형식과 중국어의 [*在 + 看*]은 대비되는 상적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在는 영어의 현재진행의 의미를 나타낸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어의 在看書에서 在는 看書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a. 我 在 看 書.
I being look book

'I am reading a book.'

b. 我 正在 進行中的 事 是 看 書.

I now progress thing be look book

'What I am doing is watch a movie.'

즉 (31a)의 의미를 (31b)와 같이 풀어 쓸 수 있는 것은 在가 나타내는 의미가 상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중국어의 在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오직 형태적 특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데서 비롯된 문제였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在를 동사, 전치사, 그리고 연동사로 분류한 범주 설정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개사 그리고 상조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4. 在의 논항구조와 의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在는 통사적으로 전치사이며 의미상으로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종래의 주장에 따라 在를 동사로 간주한다면 在는 2항술어로서 家를 내부논항으로 취하여 在家는 1항술어로 기능을 하며 在家는 다시 주어론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는 在를 동사로 취급한다면 在는 내부논항으로 家를 내부논항으로 취하고 외부논항으로 철수를 취하는 구조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在家를 전치사구로 간주하지만, 문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서술어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의에 따른다면 보다 我在家는 물론이고 我在家看書 구문도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다.

(32) a. 我 在 家.

I be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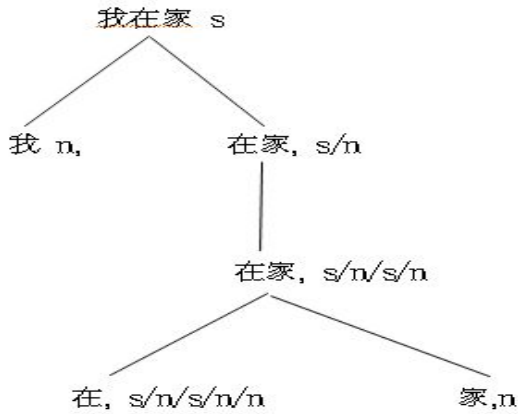
'I am at home.'

b. 我 在 家 看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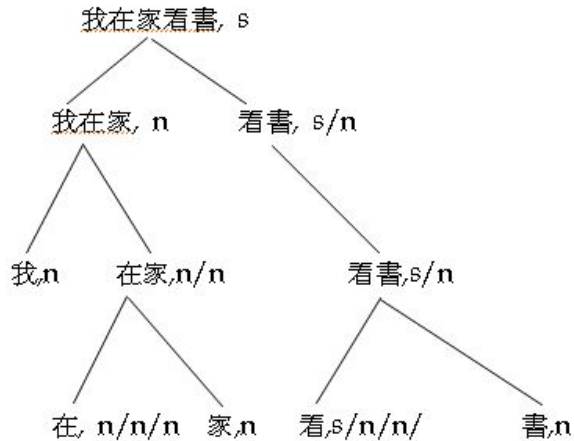
I be home look book

'I read a book at home.'

(33) a.



b .



(33a)는 (32a)의 분석도이고, (33b)는 (32b)의 분석도이다. 우선 (33a)에서 보는 것처럼 在를 동사로 간주한다면 在는 s/n/s/n/n의 범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s/n/s/n/n이 家인 n을 논항으로 취하여 在家는 s/n/s/n 범주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在家의 범주는 s/n이다. 이 경우 s/n을 s/n/s/n으로 범주상승 (category raising)²⁵해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즉 동사구 在家는 주어

n을 논항으로 취하여 문장이 유도된다.

그러나 (33b)에서 보는 것처럼 在의 범주는 n/n/n으로서 전치사로 간주한 것이다. 즉 在가 家를 논항으로 취하여 在家는 n/n 범주가 유도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주어 我的 범주를 n으로 간주한다면 주어와 전치사구가 결합하여 n 범주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33b)를 명사구로 간주할 것이냐 아니면 문장으로 간주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범주상승이다.

(33b)를 문장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주어의 범주를 n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s/n/n으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주어 John의 외연은 개체(individual)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속성의 집합(set of properties)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즉 John의 외연은 John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John은 걷다 = {x|x walks}, 노래하다 = {x|x sings} 등의 속성들의 집합 John = {W, S, ...}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듯 주어의 범주를 상승한다면 (33b)는 문장으로서 주어와 술어로서 전치사구를 갖는 경우가 된다.

在를 동사로 간주하던 아니면 전치사로 간주하던 간에 在家의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간주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문법적 기능에 의한 함수 논항간의 관계는 이른바 연동사로 간주하였던 我在家看書의 在의 범주의 상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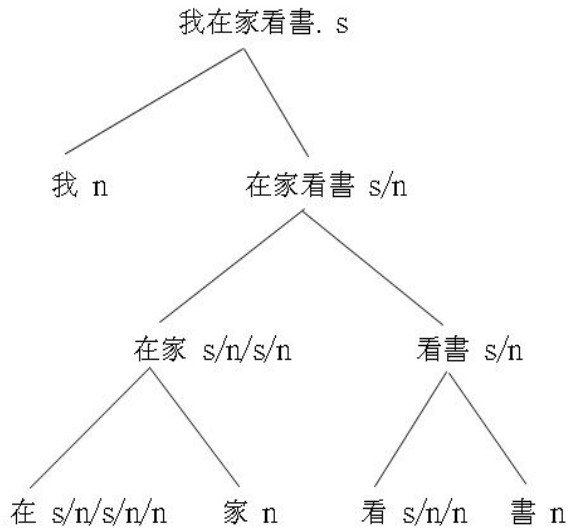
(34) a. 我 在 家 看 書.

I be home look book

'I read a book at home.'

25) 예컨대 John의 외연을 개체 j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속성의 집합 {X,Y}로 표시한다면 John의 범주를 j에서 {X,Y}로 인상한 것이다.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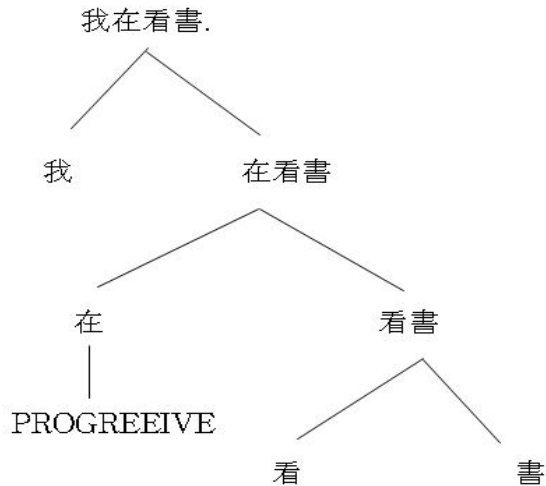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한 함수 결합규칙에 따라 제3행의 在의 범주는 s/n/s/n/n이라고 할 수 있으며, 在는 家の n을 논항으로 취하여 在家가 유도되어 在家의 범주는 s/n/s/n이 유도된다. 그리고 다시 在家는 논항 看书 s/n을 취하여 在家看书가 유도되며, 在家看书의 범주는 s/n이 유도된다. 그리고 在家看书는 다시 주어 我 n을 취하여 我在家看书 전체 문장 s가 유도된다. 이러한 결합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在의 범주는 s/n/s/n/n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在看과 같이 두 동사가 결합된 이른바 연동사로 간주하는 경우 在의 범주는 앞에서 보았던 전치사와는 사뭇 다른 범주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5) a. 我在看书.

b.



在는 동사, 전치사, 연동사로 간주하였던 종래의 논의는 在의 범주 설정에만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데서 在에 대한 의미 기술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범주 설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표현간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범주문법에 따를 표현간의 관계를 형식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는 기재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기할 수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在가 상적(aspectual) 의미를 갖는 경우는 전치사로서의 기능과는 상이함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상은 동사가 갖는 특성으로서 문법적 상과 의미적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진행상(progressive aspect)과 완료상(perfect aspect)과 같은 형태상의 상과 동사가 나타내는 반복상(예컨대 giggle), 중지상(예컨대 stop), 그리고 계속상(예컨대 continuer)처럼 동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상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이러한 상의 구조적 특성은 SOV 언어에

26) 상이란 어떤 상황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가를 기록하는 문법적 현상을 말한다. Arrts (2013)는 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notion of aspect is concerned with the way in which the grammar of a language encodes how situations unfold over time." (Arrts, 2013:171).

서는 [AUX + V]의 구조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V의 앞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6) 我 在 看 書.

I be look book

'I am reading a book.'

(36)에서 보는 것처럼 在는 본동사 看 앞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AUX의 위치에 나타나며, 동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되고 있다.

(37) a. John is reading a book.

b. John PROGRESSIVE read a book.

(38) a. John has read a book.

b. John PERFECTIVE read a book.

(37)과 (38)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상과 완료상은 본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은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는 공기할 수 없다.

(39) a. * I am reading a book today.

b. * 我 今天 在 看 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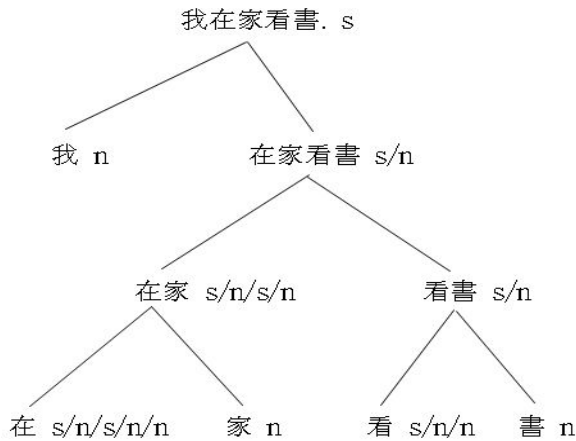
I today be read book

'Today I am reading a book.'

(39a)의 영어표현은 물론이고 (39b)의 중국어에서도 진행형과 시간부사는 공기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점에서 발생하여 종료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have* 동사를 포함한 중간동사

(middle verb)는 진행형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중국어의 在가 갖는 의미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지속된다는 사실만을 말할 뿐 사건 자체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40)



중국어 在는 존재의 의미나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 看书의 함수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상은 명제와 관련된 함수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在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사구를 논항으로 취하지만, 在의 의미적 자질은 동사나 전치사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40)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PROGRESSIVE라는 문법적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²⁷⁾ 이는 마치 시제 연산자는 동사가 갖는 속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시제 연산자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자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27) 문법적 기능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시적 대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예컨대 John의 의미는 john이라는 개체(individual)인 대상물(object)을 지시한다면 동사 walk의 의미는 걷고 있는 개체의 집합(set of individuals)인 대상물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속사 and의 의미는 명시적인 지시대상이 아니라 지시대상 사이의 함수자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and의 의미는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

VII. 결론

본 논문은 중국어 給, 跟, 在를 중심으로 이들 표현이 갖는 통사적 범주 설정과 의미 기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다 명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사적으로 이들 표현을 겹어류로 간주하고, 개사, 동사, 연사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각 범주에 따른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통사 형태적 특성에 따른 범주가 설정되고 각각의 범주에 따른 의미 기술에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이들 표현이 갖는 문법적 기능에 따른 의미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표현에 관한 논의는 자연언어로서 중국어를 언어 보편성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이 합당하고, 이러한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나 영어의 유사표현들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들 표현에 대한 범주 설정과 의미의 형식화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특히 종래의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는 형태적 특성과 통사적 관계만을 고려한 분류였고, 주어진 상황에 국한된 의미만을 기술하는 데 한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사 범주 분류의 기준을 어휘의 문법적 기능에 근거하여 어휘의 범주를 설정하고 의미 기술에 있어서도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의 모형에 따라 보편문법의 틀 속에서 형식화하려고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어의 품사 분류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중국어 품사 분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법적 기능에 의한 분류의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서 중국어 給, 跟, 在에 선행 연구를 개괄해 보고 이들 연구의 문제점을 새로운 대안에 의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제3장에서는 자연언어로서 중국어가 갖는 통사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기재로서 범주문법과 사건구조 의미론을 도입하여 이들 기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국어 給에 범주 설정이 동사, 개사, 연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중국어나 영어가 갖는 형상언어(configurational language)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분류가 합당하지 못함을 제시하고 중국어 給에는 개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給를 개사나 연사로 분류하더라도 문법적 기능

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함수-논항 관계에서 보면 개사와 연사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또한 給이 나타내는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給은 한국어의 조동사(예컨대 건네 주다에서 V2에 해당하는 주다와 동일한 기능)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으며, 영어의 give는 내포하고 있는 맥락적 의미(예컨대 A gives B a party를 어휘해체 분석하였을 때 hold a party and give a some benefit에서 처럼 V1 hold와 V2 give로 기술할 수 있음)와 give의 의미로 해체되는 경우, 중국어 給은 V2 give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중국어의 給은 의미상으로 한국어의 상조동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어의 跟은 동사, 연사, 개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跟의 원형적 의미 [+FOLLOW]에서 파생된 의미임을 보였다. 즉 跟을 동사로 간주한 것은 원형적 의미를 나타낸 것이며, 연사로 간주한 것은 접속사 생략 변형에 의하여 유도된 구문으로 파악될 수 있고, 개사로 분류한 것은 연결어(connective)라는 관점에서 분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跟이 다양한 범주와 의미적 특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문법적 기능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跟이 갖는 문법적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범주가 대동사이다. 즉 跟을 대동사로 간주한다면, 跟이 갖는 동사적 특성은 물론이고, 연사의 특성과 개사의 특성을 대동사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연사는 두 명사구의 결합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기저구조는 문장구조에서 유도된 경우이다. 즉 접속사 생략변형에 의하여 유도된 구조임으로 跟이 갖는 연사적 특성은 대동사로 기술할 수 있다. 나아가서 跟이 갖는 개사의 특성도 두 표현간의 관계이며 이 또한 기저구조는 명제의 결합관계라는 점에서 연사와 마찬가지로 대동사에 의하여 기술할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跟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대동사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고 이에 대한 의미적 기술도 역시 간결하게 형식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在를 동사, 연동사, 그리고 개사로 구분하였던 종래의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다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在가 동사로 분류하였던 경우와 개사로 분류한 경우는 모두 서술어라는 점에서 하나의 범주로 간주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즉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에서도

계사의 생략현상을 수용한다면 동사로서의 在와 개사로서의 在는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서 在를 연동사로 다루었던 종래의 논의는 형태상 두 동사가 공기하는 경우로서 이른바 상조동사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른바 연동사 구조라 할 수 있는 [在 + V]구조는 영어나 한국어의 사슬동사와도 다르며 두 동사의 대등한 결합관계 즉 동사구 접속구조도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在는 후행하는 동사보다 상위 범주의 서술어라는 점에서 영어의 상조동사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在 + V]구조와 부사적 요소가 공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在가 상조동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在의 의미적 자질은 동사나 전치사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6장 (40)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PROGRESSIVE라는 문법적 기능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사범주와 관계없이 항상 s/n/s/n 범주에 의하여 보다 간결하게 在의 의미적 특성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본론인 제4장, 5장, 6장의 논의를 통해서 제안한 방안과 모든 논의의 접근 방법은 종래의 중국어 給, 跟, 在에 대한 접근 방법과는 전혀 새로운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가 형식적 기재를 도입한 경우도 아니었고, 논증 방법 역시 보편성을 결여한 학자의 직관에 따른 분류와 의미 기술이었다는 점을 통해 중국어의 연구가 귀납적 접근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었으며, 중국어 기술에 대한 형식적 기술 방안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중국어 표현의 국한된 자료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과 논거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차후의 해결방안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범모, 『범주문법』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3.
- 김석득,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1992.
- 김숙현, 우리말 ‘-에게’에 해당하는 중국어 개사(介詞) 연구,(‘對’, ‘跟’, ‘給’, ‘向’을 대상으로), 인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차균, 국어 시제의 기본 의미, 『지현영선생 고회 기념논총』, 1980.
- 남기심, 국어 문법의 상과 시제, 『한국학보 12』, 1978.
-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93.
- 맹주희, 현대한어 ‘gei’자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02
-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83.
- 박태규, 영어시제와 시간부사에 관한 연구, 『언어학 5-1』, 대한언어학회, 1997.
- 서정수, 『국어 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6.
- 성기철, 어미 ‘-고’와 ‘-어’의 비교연구, 『국어교육 18』, 19, 20, 1972.
- 손숙자, 영어 부사구 분석, 『언어학 6-2』, 대한언어학회, 1998.
-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서울, 월인, 2008.
- 신현숙,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1986.
- 양동휘, 국어 보조동사의 관용성, 『김영희 박사 송수기념 영어영문학논총』, 1978.
- 양인석, 『Grammatical Rules of English』, 서울, 한국문화사, 2008.
- 옥태권,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이기용, 『상황과 정보』, 대학사, 서울, 1998.
- 이영현,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가지 특성, 『언어』 21-4, 한국언어학회, 1996.
- 이영현, 유재근, 『의미론의 신경향』 한국문화사, 2003.
- 이영현, 사슬동사의 하위범주와 아원자적 의미기술, 『언어과학, 12(1)』, 2004.
- 이영현, 단순동사와 사슬동사의 상적 분류와 의미, 대한언어학회, 『언어학13-3』, 2005.
- 이환묵, 영어부사에 관한 연구: 문장부사와 술부부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51권』, 한국영어영문학회, 1974.
- 이환묵, 국어함수 표현에 관한 연구, 아니, 또, -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 임유중, 『한국어부사연구』, 한국문화사, 서울, 1999.

- 조희무, 안기섭, 중국어의 품사, 송경안·이기갑의 『언어유형론』 월인, 서울, 2008.
- 최성훈, 서월아, 중국어 ‘在’의 문법적 기능과 의미 표시에 관한 범주문법적 분석, 대한언어학회, 『언어학』, 2016.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서울, 1984.
- 池愛平, “跟”의語法化[J], 內江師範學院學報, 2011
- 范繼淹, 論介詞短語“在十處所”[J], 語言研究, 1982.
- 黃健秦, “在+處所VP”与“V在+處所”的构式承繼關係与語篇關係[J], 当代修辭學, 2013.
- 李志賢, 現代漢語介詞短語“在+NP”的語序制約因素及其构式義考察[D], 上海師範大學, 2014.
- 梁琚, 句首介詞“在”的偏誤分析以及對外漢語教學策略[D], 湖南師範大學, 2014.
- 林齊倩, 介引處所的介詞短語“在NL”[D], 蘇州大學, 2004.
- 劉宇生, 句首介詞結構“在……”的語義指向[J], 漢語學習, 1984.
- 劉小梅, 論英漢介詞与介詞短語的异同[J], 河北北方學院學報, 2008.
- 劉永耕, 動詞“給”語法化過程的義素傳承及相關問題[J], 中國語文, 2005, (2).
- 劉月華 外, 實用現代漢語語法, 外語教學, 1983.
- 呂叔湘, 漢語語法分析問題[M], 北京市, 商務印書館, 1979, 11.
- 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 沈家煊, “在”字句和“給”字句[J], 中國語文, 1999, (2).
- 隋長虹, “給我”動詞短語句的多角度考察[J], 臨沂師範學院學報, 2003, (4).
- 王還, 再說說“在”[J], 語言教學与研究, 1980.
- 延俊榮, “給”与“V給”不對稱的實証研究[J], 語言研究, 2005, b(1).
- 俞咏梅, 論“在+處所”的語義功能和語序制約原則[J], 中國語文, 1999.
- 張國憲, “在+處所”构式的動詞標量取值及其意義浮現[J], 中國語文, 2009.
- 張正, 現代漢語“跟”的詞性考察, 安徽大學 文學院, 2013.
- 周紅, 現代漢語“給”字句的語義類型与語義特征[J], 寧夏大學學報, 2007, 3.
- 朱德熙, 与動詞“給”相關的句法問題[J], 方言, 1979, (2).
- 朱德熙, 語法講義[M], 北京, 商務印書館, 1982, 39-40.
- 朱德熙, 說“跟……一樣”[J], 漢語學習, 1982(1):1-5.
- 朱德熙, “在黑板上寫字”及相關句式[J], 語言教學与研究, 1981.
- 朱德熙, 包含動詞“給”的夏雜句式[J], 中國語文, 1983, (3).

- Ajdukiewicz, K, Syntactic Connexion, in Storrs McCall (ed) *Polish Logic*, Oxford, 1935.
- Austin, Jennifer R. et.al, *Adverbial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 Philadelphia, 2004.
- Arrts, B,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Modern Linguistic Series, Newcastle, UK, 2013.
- Bach, E, On Time, Tense, and Aspect: An Essay in English Metaphysics. in Peter Cole (ed) *Radical pragmatic*, Academic Press, New York, 1981.
- Bach, E,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5-16, 1986.
- Bar-Hillel, Y, A Quasi-arithmetical Notation of Syntactic Description, *Language*, 19, 1953.
- Borer, Hagit, *The Normal Course of Events*, Oxford, Oxford Univ. press, 2005.
- Broshart, J. The Characteristics of word classes from a cross linguistic perspective, in Cruse, D. A. F. Hundsnurscher, M. Job & P. R. Lutzeier(eds) *Lexikologie Ein international Handbuch zur Natur und Struktur von Worten und Wortschatzen*,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 Castaneda, H-N, Comment on D. Davidson's "The Logical Forms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1967.
-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Cinque, Guglielmo,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Cooper, R. *Quantification and Syntactic Theory*, London, D. Reidel Publishing Co, 1983.
- Curme, Otto, *Syntax*, D.C. Heath and Company, Japan, 1931;373-388.
- Curry, B. Some Logical Aspects of Grammatical Structure, in Roman Jakobson (ed.) *Structure of Language and Its Mathematical Aspects*,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1961.
- Davidson, D,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7.

- Dowty,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 Deidel Publishing Co. Boston, D. R. (1979).
- Ernst, Tomas,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2.
- Fraassen, C, van, *Formal Semantics and Logic*, Macmillan, New York, 1971.
- Galton, A, *The Logic of Aspect*. Oxford: Clarendon Press, 1985.
- Haegeman, L.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asil Blakewell. 1991.
- Hale, K. & S. J. Keyser,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K. Hale &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rger*, MIP Press, Cambridge, 1993.
- Higginbotham, J, Mass and Count Quantifiers in Bach, E. et al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 Kluwer, Dordrecht, 1995.
- Hinrichs, E. W,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Aktionsarten and NP Reference In English. Ph. 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5.
- Hopper. E and Thompson. S,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 Hoye, Leo, *Adverbs and Modality in English*, Addison Wesley Longman, Edinburgh, 1997.
- Jackendoff, E. G.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Jansen Bert, Hilda Koopman & P. Muysken, *Serial verbs in the Creole Languages*, Amsterdam Creole Studies II, University of Amsterdam Institute voor Algemene Taalwetenschap, 1978.
- Jespersen, Otto,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V,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49.
- Jo, In-hee, Multi-verb constructions in Korean in *When Verbs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ed. Joseph B and Zwicky A), Ohio-State University, Columbus, 1990.

- Jo, In-hee, A Unified Semantic analysis of serialization: Intensionality of even individuation. Diss. of Ball State University, 1993.
- Jong-Bok, Kim and Yang Yaehyung, Parsing Complex Predicate Constructions in the Korean LKB. 한국언어정보학회발표 논문, 2003.
- Jonson, B. The English Grammar. in Herford, c. H & E. Simpson (eds), *Ben Jonson*. Vol. 8. Oxford, 1640.
- Kamp, H. and U Reyle, *From Discourse to Logic (Part I)*, Kluwer Academic Publishing, Dordrecht, 1993.
- Katz, G, Anti neo-davidsonianism: Against a davidsonian for state sentences. In C. Tenny and J. Pustejovsky (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1999.
- Kearns, K, *Semantics*, Macmillan Press, London, 2000.
- Kenny A,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63.
- Kim, Jong-Bok and Yang, Jaehyung, Parsing Complex Predicate in the Korean LKB System, 2003. (한국언어정보학회 2003학술대회)
- Lakoff, G, Pronouns and Reference, Unpublished paper,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Bloomington, 1968.
- Lambeck, J. V, *The Lambeck Calculus, in Categorical Grammar and Natural language Structure*, (et.al) D. Reidel Publishing Company, Dordrecht, 1961.
- Lee, Kee-Dong, The deictic motion verbs KATA and OTA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Columbia: Hornbeam Press. Li Charles and Sandra, 1978.
- Lee, Sookhee,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construction,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ashington, Hankuk Publishers, 1992.
- Levis, D,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ed by ed. Keena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 Li, Charles and Sandra Thompson, Co-verbs in Mandarin Chinese: Verbs or preposition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3), 1974.
- MaCawley James,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4, 1968.
- Montague, R,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Formal Philosophy*,

- Massachusetts, The Mruuay Printing Co, 1974.
- Oehrie, T., Bach, E. and Wheeler, D, eds. *Categorial Grammar and Natural Language Structure,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32, D. Reidel Publishing Co. 1988
- Parsons, T,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The MIT Press, Cambridge, 1990.
- Postal. P, "On coreferential complement subject deletion' *Linguistic Inquiry* 1, 439-500, 1970.
- Postal. P, *On Raising*, MIT Press, 1974.
- Pullum G. K, Constraints on Intransitive quasi-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odern Colloquial English. in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1990.
- Pustejovsky, J. ed,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London. 1985.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1991.
- Radford, A.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7.
- Rochette, A, The selectional properties of adverbs, in *Papers from the 26th Regional Meeting of CLS*, 1993.
- Russell, B, On Denoting, in *Mind* 14, 1906.
- Ryle, R, *The Concept of Mind*, Harmondsworth, Middlesex, Peregrine Books, 1949.
- Sebba, M, *The Syntax of Serial Verb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 Co, 1987.
- Sells, Peter, Words versus Phrase in Syntactic Theory, 대한언어학회 여름연구회 발표. 조선대학교, 2004.
- Seuren, Pieter, Serial verb Constructions.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1990.
- Sanghourn, Types of Korean Adverbs Korea University Working Papers in *Linguisitcs Vol. 2* 고려대학교, 서울, 2008.

- Stowell, T. Origins of Phrase Structures. Ph.D. Dissertation, MIT. 1981.
- Strawson, P. F, On Referring, in *Mind* 59, 1960.
- Tenny, C. and J. Pustejovsky, ed,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Publications, Standford, 2000.
- Thomason, R. H. and R. C. Stalnaker, A semantic theory of adverbs, in *Linguistic Inquiry IV (2)*, 195-220, 1973.
- Thompson, Sandra,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andarin Chinese Subordination or coordination? *CLS Comparative Syntax Festival*, 1973.
- Travis, Lisa, The Syntax of Adverbs, in *McGi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McGill University, 1988.
- van Voorst, J, Event Structure, *Current Issues in Linguistics Theory*, Vol. 59, John Benjamins Publishing, Amsterdam, 1988.
- Vendler. Z,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NY, 1967.
- Verkyul. H. J, A Theory of Aspectuality, *The Interaction between Temporal and Atemporal Structr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3.
- Wall, R,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inguistics*, Prentice-Hall, New Jersey, 1972.
- XU YUEE, Grammatic Function of 在 as Preposition and Aspectual Auxiliary, *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Chosun University, 2015.
- Yang, In-Seok,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Columbia: Hornbeam Press, 1978.
- Yoshikawa Hiroshi, A Semantic Analysis of Accomplishments of the basis of Event Semantics, in *English Linguistics*, Journal of the English Linguistic Society of Japan, Kaitakusha Publishing co. Tokyo, 2003.
- Zwicky A,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serial verb?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1990.